



예술과만남

2024 Vol 166 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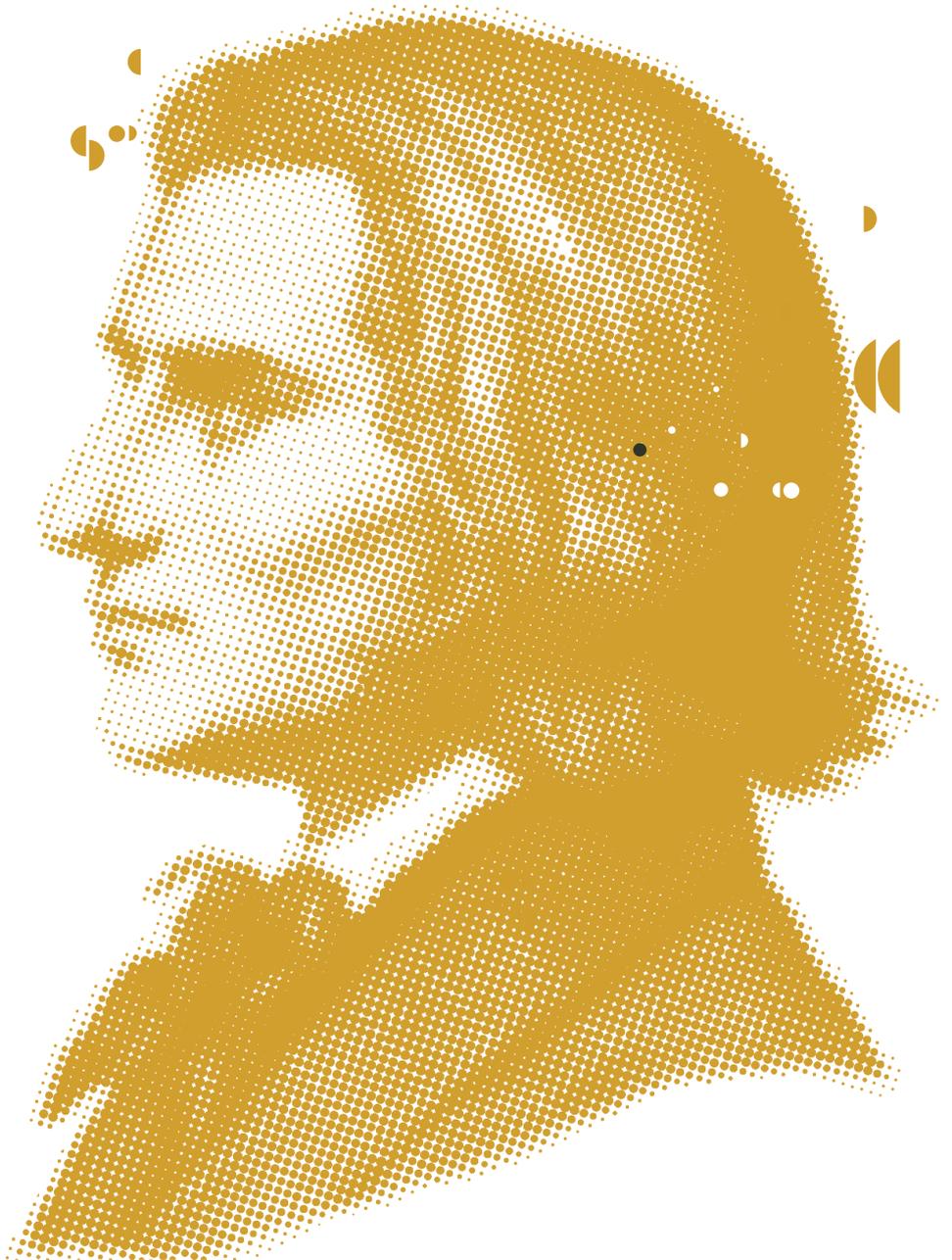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포커스 리스트, 베토벤을 오마주하다

인터뷰 GGAC 예술단 신임 예술감독을 만나다

프리뷰 하나 경기필하모닉, 2024년 시즌 프로그램

컬처로드 경계를 넘어 새로운 창의를 열다



프란츠 리스트

(Franz Liszt, 1811~1886)

헝가리 태생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교향시와 단악장 소나타를 최초로 작곡했다.

<메피스토 왈츠>, <헝가리 광시곡>,
<사랑의 꿈 3번>, <라캄파넬라> 등이 있다.

훌륭한 연주로 인정받아 "피아노의 왕"이라 불리었으며,
지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로 추앙받고 있다.

Franz Liszt

보이는가, 예술의 설렘이

들리는가, 깊은 여운이

느껴지는가, 떨리는 전율이

만져지는가, 영감과 자극이

어느새 물든 벽찬 감동

오늘도 예술은 일상을 조율한다

CONTENTS



GGAC's Theme

- 08**
아트 인사이트
예술과 상업이 엮히는 곳에서
어느 예술가의 '중간지대' 이야기
- 12**
포커스
리스트, 베토벤을 오마주하다
- 16**
인터뷰 I
관객과의 행복한 동행을 꿈꾸다
김광보 경기도극단 신임 예술감독
- 19**
인터뷰 II
우리 무용으로 경기 천년
문화유산의 맥을 이을 터
김경숙 경기도무용단 신임 예술감독
- 22**
인터뷰 III
최고의 정점을 찾아가는 길
김성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신임 예술감독
- 25**
인터뷰 IV
꾸준함과 긴 호흡으로
경기필 알리는 데 노력할 것
김선욱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신임 예술감독
- 28**
내다보기
봄의 길목, 공공예술로 가는 길

On Stage

- 30**
프리뷰, 하나
경기필하모닉, 2024년 시즌 프로그램 공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
- 32**
프리뷰, 둘
'2023 창작희곡공모'
당선작 낭독극 & 입체낭독극
창작희곡의 발견 낭독을 보다
- 34**
리뷰, 하나
젊은 보수주의자,
김선욱호 출범
김선욱 음악감독 경기필 취임연주회
- 36**
리뷰, 둘
치유와 희망을 담아
잘 차려 낸 음악 잔치상
<2023 경기아트센터 송년음악회>

Art N Culture

- 40**
예술이 만난 인문학
대한민국에 꽃피는 살롱 문화
무엇이 이들을 행복하게 할까?
- 44**
이달의 책과 음반
마실을 가다, 입
마실을 먹다, 食
- 46**
컬처로드
경계를 넘어 새로운 창의를 열다
- 50**
예술 알고리즘
알고리즘으로 꿈꾼 예술의 민주화
바자렐리가 펼친 망막 위의 마법
- 54**
#공감태그
#독자참여 #SNS공연리뷰

GGAC Story

- 58**
GGAC VLOG
꺄 경기아트센터 취업 치트키
공채합격 뽐내기
- 60**
담당자의 노트
여전히 현장에서 배운다
무대음향 담당자의 노트
- 62**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뉴스
- 64**
CALENDAR
2·3월 주요 공연 일정
- 66**
예술과만남 ON!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예술과만남

예술과만남
GGAC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2024 VOL.166 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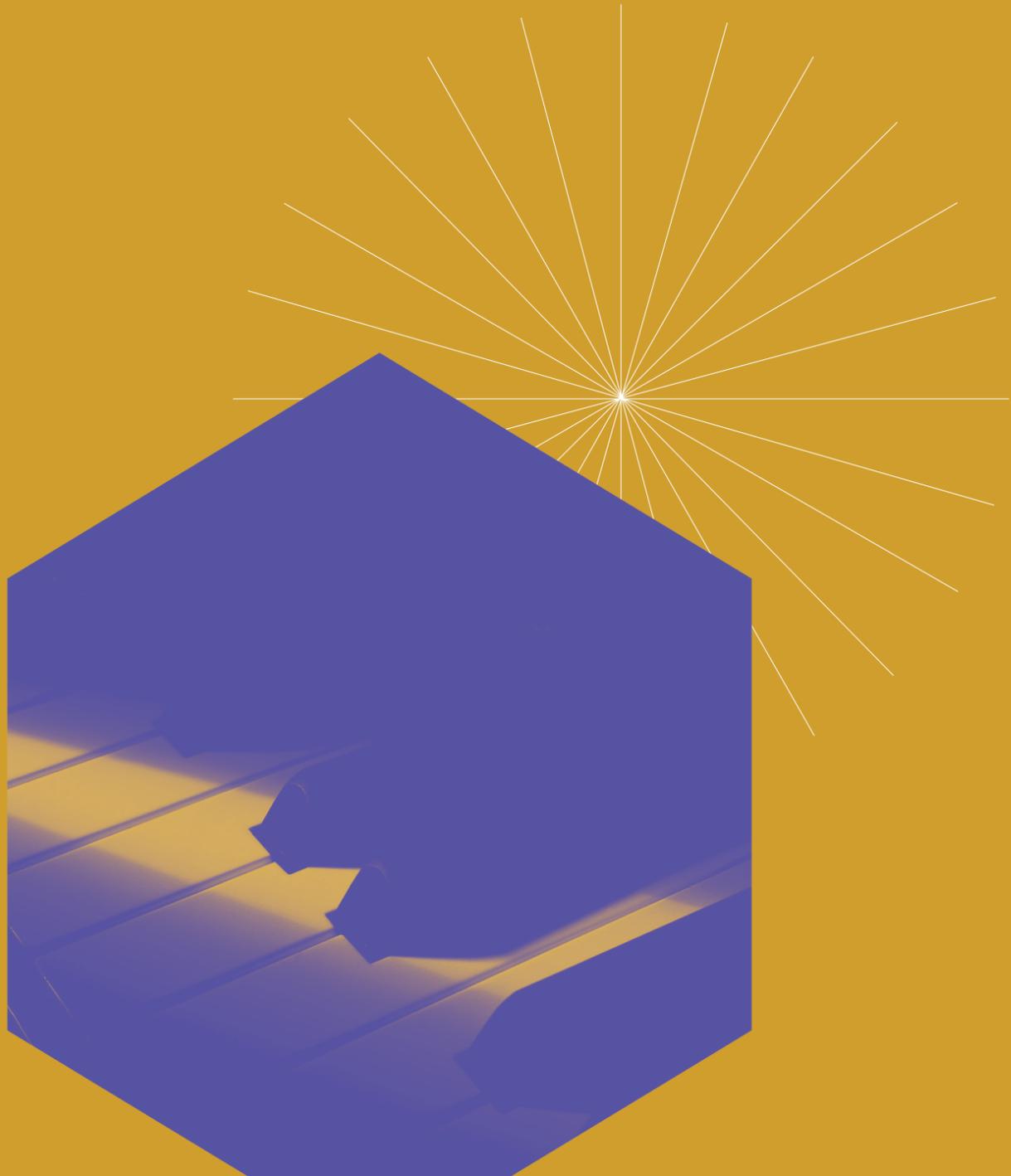
격월간 예술과만남 2024년 02+03월
발행처 경기아트센터
발행인 서춘기
편집장 임선미
기획·취재 허명현, 염한글,
ACE(예술과만남 편집회의)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전화 031-230-3242
이메일 magazine@ggac.or.kr
홈페이지 www.ggac.or.kr
ISSN 2234-5949
기획·디자인 방형식디자인

<예술과만남>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COVER STORY
이번 호 표지를 장식한 주인공은 헝가리 태생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프란츠 리스트입니다.
그는 현존하는 피아니스트 중에서 인류 역사상
최강의 피아니스트라 할 정도로 명성이 드높습
니다. 베토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리스트 그리
고 리스트와 연결된 바그너. 2024년 경기필하모
닉 레퍼토리 마스터즈 시리즈 I <베토벤 교향곡
3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순수예술의 공공성과 상업예술의 대중성. 전자를 '정신'으로, 후자를 '물질'로 압축한다면 너무 잔인한 표현일까? 대중의 눈높이와 예술의 지향점 사이에는 분명 괴리가 존재한다. 정답 없는 모범답안. 경기아트센터 신임 예술감독들이 전하는 공공과 대중의 무게중심은 흡사 뫼비우스의 띠를 닮아 있었다. 관객과 예술을 잇는 마법의 연결고리, 말이다.



예술과 상업이 얽히는 곳에서



GGAC's Theme 아트 인사이트

어느 예술가의 '중간지대' 이야기

예술과 상업의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생산구조이다. 일반적으로 상업적 생산구조는 최종 소비가 성립하기까지 생산-유통-소비의 세 단계를 거친다. 반면 예술은 제품의 상품화 과정인 유통 단계가 상당 부분 생략된 제작-소비의 2단계 구조를 띤다.



쿡방 플랫폼

상업은 '소비자의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지만, 예술은 동시에 예술가 본인의 만족과 완벽에 대한 열망을 함께 추구하기 때문이다.

요리도 하나의 예술이 되는 세상

예술과 상업, 두 분야의 차이는 생산력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의 제작 체계만 확보하면 무한에 가까운 생산력을 갖출 수 있는 상업과는 달리, 예술 작품의 생산은 소비자의 수요와 더불어 생산 당사자인 예술가의 의사가 매번 반영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상업은 '소비자의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지만, 예술은 동시에 예술가 본인의 만족과 완벽에 대한 열망을 함께 추구하기 때문이다. 최고 시청률 7.4%를 기록하며 종영한 한 종편방송에서 셰프와 비전문가가 함께 출연해 15분 안에 요리를 완성해 대결을 펼친 TV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술과 상업적 기질을 겸비한 셰프들의 등장도 한몫했다. 요리도 하나의 예술이 되는 세상이다. 셰프들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에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마치 예술 작품과도 같은 요리를 탄생시킨다.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셰프들은 '15분 내 완성'이라는 까다로운 제약 속에서도 매번 완성도 높은 요리를 만들어낸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건 레스토랑이나 제품을 통해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쿡방'과 '먹방'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방송국과 시청자들을 리드한다. 그야말로 출연진을 비롯해 방송국과 소비자 모두가 윈-윈 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예술과 상업이 조화롭게 얽혀 있는 모습이다.

위계 원칙 사이에 필요한 '중간지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쇼핑백이나 화장지 박스의 겉면에 고흐나 르누아르의 명화를 인쇄하자 매출이 15%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예술과 상업의 결합은 이처럼 긍정적인 구조의 흐름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술과 상업이 서로를 보완하며 결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어떤 형태일까?' 그 힌트는 '위계 원칙'의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계 원칙은 '외적 위계 원칙'과 '내적 위계 원칙'으로 나뉜다. 전자는 대외적인 유명세를 얻거나 상업적인 성공을 이뤘을 때 일컫는 개념이며, 후자는 동일한 계층과 업계에 알려지고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서로 얽힐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위계 원칙 사이에 '중간지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보와 마케팅이 결핍되어 있는 기초 예술의 생산 구조는 결과적으로 소비를 창출해 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며, 때로는 수익을 내는데 실패한다.



서로 얽힐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위계 원칙 사이에 '중간지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보와 마케팅이 결핍되어 있는 기초 예술의 생산 구조는 결과적으로 소비를 창출해 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며, 때로는 수익을 내는데 실패한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 namu.wiki



로키(LOQ)의 고흐 명화 에코백 © Museum of Modern Art NewYork

예술경영 실천력 갖춘 예술경영가

앞으로 예술계에 필요한 것은 기초 예술과 상업이 얽혀 있는 지점, 그 중간지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예술경영의 실천력을 갖춘 예술경영가이다. 그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예술은 보다 온전히 순수성을 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상품으로써의 잠재력을 지닌 예술 작품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작품을 매대에 진열한 채 누군가 알아서 찾아와 구매해주길 바라던 시대는 지났다. 오늘날 작품의 가치는 그 자체의 완성도나 예술성뿐만 아니라 작품의 상품화에 투자되는 모든 과정까지도 포괄해 매겨진다. 이제 예술가들은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가 대중에게 전달, 소비, 유통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작품 활동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르누아르의 명화를 인쇄한 수국 티슈 박스 © Art de Lys 2023



정경
EBS FM <정경의 11시 클래식> 생방송 진행자, 한국경제 arteTV <아트룸 뉴스> 앵커, 세계 3대 글로벌 배급사인 워너 뮤직(Warner Music)에서 아티스트이자 클래식 신사업-예술경영부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대학원 바리톤 성악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리스트, 베토벤을 오마주하다

GGAC's Theme 포커스



19세기 중반의 유명한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1811~1886)는 뛰어난 작곡 실력과 수려한 외모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예술가다. 오스트리아 화가 요제프 단하우저(1805~1845)가 그린 '피아노 앞의 리스트'는 그런 리스트의 삶과 함께 19세기 예술가들의 교류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1827년 3월, 루트비히 판 베토벤(1770-1827)이 세상을 떠났다. 빈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수만 명이 운집했다. 음악가의 죽음에 이처럼 사회적 관심이 몰린 적은 없었다. 베토벤은 사후에 더욱 흠모의 대상이 된 첫 음악가였으며, 심지어 악성(樂聖·성인<聖人>이라고 이를 정도로 뛰어난 음악가)으로 불리게 된다. 19세기 중반부터는 연주회에서 반드시 베토벤이 한 곡 이상 연주되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생겨났다. 독일어권뿐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도, 동유럽과 북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페라의 나라 이탈리아 정도만 예외였다.

탄생 75주년을 맞은 1845년에는 고향 빈에 베토벤 동상이 세워졌다. 그러나 제막식 행사를 빛낸 최고의 주인공이 따로 있었으니, 바로 프란츠 리스트였다. 게르만족이 아닌 헝가리 출신의 젊은 피아니스트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베토벤의 정통 계승을 자랑스러워하다

리스트는 헝가리 사람이다. 부친은 8살의 신동 아들을 당대 최고의 피아노 교사인 카를 체르니에게 맡기고자 빈으로 찾아가 제자로 받아들라며 무릎까지 꿇었다. 체르니는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즉흥연주와 초견 능력이 대단한 것에 놀라 리스트를 받아들였다. 체르니는 베토벤의 직계 제자였고, 심지어 자신의 사명은 미래 피아니스트들이 베토벤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 있다고 여겼다. 그 인연으로 어린 리스트는 베토벤 앞에서 연주할 기회가 있었고, 대가의 키스를 받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1822년(11세) 온 가족이 빈으로 옮긴 다음에는 안토니오 살리에리에게 음악이론을 배웠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범재로 그려진 살리에리는 사실 오랫동안 존경받은 음악가였고, 베토벤과 슈베르트를 가르친 스승이기도 했다. 이런 배경 덕분에 리스트는 베토벤의 정통 계보를 이었다고 평생 자랑스러워했다. 물론 일반적인 음악사에서는 리스트보다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바그너, 브루크너 등 독일권 작곡가들을 베토벤의 적자(嫡子·정실이 낳은 아들) 그룹으로 간주한다.

리스트는 1840년대 후반에도 베토벤의 여러 곡을 편곡한 바 있지만 교향곡 전집이야말로 베토벤에 대한 진정한 오마주라 할 수 있다. 복잡한 9번 4악장조차 깔끔하면서도 충분한 스케일을 느낄 수 있도록 마무리한 것은 리스트가 아니라면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SYMPHONIES NOS.1-9/ CYPRIEN KATSARIS <베토벤-리스트: 교향곡 피아노 편곡집> 앨범

그림으로 남은 리스트의 베토벤 숭배

요제프 단하우저는 베토벤 서거 소식을 듣자마자 그 집을 찾아가 약성의 죽은 얼굴을 스케치하고 데스마스크를 쓴 화가다. 그의 그림 '피아노 앞의 리스트'(1840)에서 리스트는 베토벤의 석고상을 존경어린 태도로 바라보며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그 주변은 당대의 예술계 명사들이 둘러싸고 있다. 바닥에 앉아 리스트를 올려다보는 여인은 마리 다구 백작부인이다. 남편과 헤어져 리스트와 동거하면서 2녀 1남을 낳았고, 그중 작은딸이 바그너의 두 번째 아내가 된 코지마다. 어깨동무를 한 두 사람은 이탈리아 바이올리니스트 나콜로 파가니니와 오페라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다. 리스트는 파가니니의 연주를 듣고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되기로 결심했고,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로시니의 여러 곡을 피아노로 편곡했다. 의자에 등을 대고 앉은 사람은 항상 남장을 하고 다닌 여류작가 조르주상드다. 그 옆의 남자는 상드의 연인으로 유명한 쇼팽이 아니라 책을 들었으니 작가 알프레드 드 뮌세 또는 알렉산더 뒤마로



피아노 제조업자 콘라트 그라프(Conrad Graf)가 화가 요제프 단하우저(Joseph Danhauser)에게 주문해 제작한 작품 '피아노 앞의 리스트'(1840)

보인다. 그 뒤에 선 사람도 분명치 않다. 빅토르 위고이거나 작곡가 엑토르 베를리오즈일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그림은 명백한 상상화다. 실제로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은 없었다. 그림을 주문한 피아노 제작자 콘라트 그라프는 자기 회사 피아노로 불멸의 거장 베토벤이 연주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 광고모델이 리스트였던 셈이다. 당대에 리스트가 기교적인 비르투오소를 넘어 스승 체르니의 소원대로 가장 뛰어난 베토벤 연주자가 됐음을 보여주는 증표라 하겠다.

본의 베토벤 동상과 리스트

앞에 서술한 본의 베토벤 동상은 1835년에 준비위원회가 생기면서 추진됐지만 당시 문화예술인의 동상이란 것이 드문 일이었기에 모금조차 쉽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리스트다. 모금을 위한 콘서트를 각지에서 열었고, 최소 1만 프랑이 넘는 거액을 여러 회에 걸쳐 기부했다. 지금 구매력으로는 2억 원이 넘는 가치다. <베토벤 동상 개막 기념 축제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헝가리 태생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피아노의 왕'이라 불린다. 뛰어난 기교로 유럽에 명성을 떨쳤고, 지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로 추앙받고 있다. ©wikipedia.org



베토벤의 75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베토벤 기념 동상

칸타타>란 곡도 작곡했다. 거의 잊힌 곡이지만 1845년 8월에 열린 이 연주회야말로 리스트가 대중 앞에 지휘자로 선 첫 경험이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리스트는 피아니스트, 작곡가일 뿐 아니라 베를리오즈와 바그너를 알리는 데 앞장선 지휘자로 중요한 인물이 됐다.

베토벤 교향곡 전곡의 피아노 편곡

리스트는 비르투오소(virtuoso·뛰어난 기교를 보여주는 거장 음악가)의 삶을 벗어난 이후 기존 곡을 이용한 피아노 편곡이나 화려한 환상곡을 주제로 하는 일에 흥미를 잃었다. 그런데 한 출판업자가 베토벤 교향곡 전체의 피아노 편곡 연작을 끈질기게 요청하자 마음이 움직였다. 게다가 리스트는 1830년대 후반에 이미 베토벤 5번, 6번, 7번을 편곡한 바 있었고, 1851년에는 합창과 독창까지 들어가는 9번도 두 대의 피아노용으로 편곡한 터였다. 1863년(52세)부터 전집 완성에 돌입한 리스트는 1번부터 4번, 8번을 새로 편곡했고, 5번부터 7번까지는 개정했으며, 9번도 한 대의 피아노를 위한 것으로 바꿨다.

리스트는 1840년대 후반에도 베토벤의 여러 곡을 편곡한 바 있지만 교향곡 전집이야말로 베토벤에 대한 진정한 오마주(hommage·존경, 존중을 뜻하는 프랑스어)라 할 수 있다. 환상곡풍이 아니라 원래 악보에 충실하면서 비록 다채로운 악기 음색까지는 아닐지라도 피아노 한 대로 그 분위기를 거의 다 살렸다. 복잡한 9번 4악장조차 깔끔하면서도 충분한 스케일을 느낄 수 있도록 마무리한 것은 리스트가 아니라면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리스트는 교향곡 편곡 작업에서 스스로도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다. 비트겐슈타인 후작부인 카롤린과의 결혼이 교황청 승낙을 받지 못해 무산되는 등 여러 해 동안 우울증을 겪어왔지만 베토벤의 심연에 다다르면서 극복해 낼 수 있었다. 작업이 끝난 이듬해(1865년)에는 원하던 사제 서품을 받았다. 여성 편력가였던 리스트가 종교인으로 변신한 것이다. 미사 집전 자격이 없는 초급사제직이었지만 이때부터 리스트는 책을 읽고, 제자를 가르치고, 종교적인 곡들을 작곡하면서 남은 21년을 보냈다. 만년에도 여전히 스캔들이 없지 않았지만 리스트는 평생 존경한 베토벤의 만년 고독도 체험했을 듯싶다. ◀

글 유형종
음악동호인을 위한 감상실 '무지크바움'을 운영하면서 클래식음악과 무용, 영화 및 관련 인문학을 해설하고 함께 감상한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이며 <법률신문>에 격주로 클래식영상을 소개하는 글을 연재 중이다. 저서로는 <불멸의 목소리> 남성편과 여성편, 2021년 하반기 세종도서 선정작 <신화와 클래식> 등이 있다.



공공 극단한테는 공공성, 대중성, 작품성 등이 속제로 주어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적인 역할을 분명히 해야 우리 극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GGAC's Theme 인터뷰 |

관객과의 행복한 동행을 꿈꾸다

김광보 경기도극단 신임 예술감독

2024년 1월 1일, 경기도극단에 김광보 예술감독이 새롭게 부임했다. 30년이 넘는 시간을 민간극단부터 국립극단까지 두루 거치며 다양한 작품을 연출해온 김광보 감독의 이번 취임은 연극관계자들은 물론 평단, 대중들에게까지 큰 관심을 받았다. 신임 예술감독의 부임으로 경기도극단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글: 편집부 사진: 김재이

현장으로 돌아와 행복한 감독

“경기도극단을 맡게 돼서 행복합니다.” 경기도극단을 새롭게 이끌어 갈 김광보 감독이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짓는다. 국립극단의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재직했던 그의 다음 행보에 많은 이들의 궁금증이 쏠렸던 것은 당연지사. 그는 “자리가 뭐가 중요한가? 결국은 쓸데없는 고민이고 개인적인 욕망에 불과하다”라는 명쾌한 선언으로 유쾌하게 ‘현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광대가 한껏 솟은 그의 웃음은 누가 봐도 의례적이지 않은 진심이 가득하다.

고교 시절, 함께하는 친구들이 좋아 배우로 연극판에 발을 내디딘 김광보 예술감독은 1994년 민간극단 ‘극단 청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극단과 작품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연극역사와 그 궤를 함께해왔다. 세심하고 예리한 대본 분석, 대중성과 예술성을 넘나들며 평단과 관객의 호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온 그의 이력은 당연히 매 순간 ‘기대치’를 양산해 왔고, 이는 경기도극단의 새로운 수장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다. 취임 직후부터 경기도극단 단원들을 일대일 혹은 대대일로 만나면서 부지런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김광보 감독은 이미 중요한 결론을 도출해 낸 상태이다.

“교감하고 전달하는 것이 연극이라면 그러기 위한 사전 작업은 결국 소통입니다. 단원들과 내가 어떻게 소통하나에 따라서 작품의 결과도 달라지고, 그 결과를 관객들과 소통하는 배우들 역시 달라집니다. 신임감독 공채 과정에서 계획서를 발표하는데 사실 그건 불필요한 일이에요. 혼자 세우는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같이 일할 사람들의 특징과 면면을 파악해야 진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김광보 감독은 단원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미 몇 가지 훌륭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다시 아이처럼 눈을 빛냈다.

공공 극단의 존재 이유를 찾다

당연한 말이지만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변화를 예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단원들과 관계자들이 기대와 긴장을 절반씩 섞어서 바라보는 것도 바로 이 변화라는 단어가 주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면 좋은가, 라는 질문에 김광보 감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다만 원론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것”이라는 간결하지만 매우 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공공극단한테는 공공성, 대중성, 작품성 등이 속제로 주어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적인 역할을 분명히 해야 우리 극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공공적인 역할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관객하고 만나는 접점이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연습에 들어가는데 저는 아마 단원들에게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무대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맞냐고. 70~80년대 같은 연기나 대사톤, ‘척’하는 연기는 제가 견딜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짚어가다 보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어쩌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겁니다.”

그가 무대에 올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모락모락 피어 오른다. 김광보 감독은 그간 어려운 고전부터 창작극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여 왔지만 경기도극단에서는 일단 보편적이고 쉬운 작품을 먼저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좀 쉽고 재미있는 연극, 청소년 연극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한태숙 전임감독이 재발견한 <매달린 집>(미셸 트랑블레 지)을 포함해 <단명소녀 투쟁기>(현호정 지), <우리읍내>(손튼 와일더 지) 등 다양한 작품을 언급하며 올해 라인업에 대해 살짝 힌트를 줬다.



즐거운 연극, 생각하는 연극을 위한 도전

김광보 감독은 예술성은 대중성보다 결코 우위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관객들과 열심히 만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술이 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예술성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본인의 임무를 다했을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들 이에요. 저는 모든 예술은 대중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성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관객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처럼 오만한 말은 없습니다. 아주 오래 작품을 만들어왔지만 전 지금도 대중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죠.”

첫날의 첫 공연은 아직도 발발 떨린다며 웃음을 터뜨린 그는 “<벚꽃동산>(안톤 체호프 저)을 무대에 올렸을 때 처음으로 관객의 시선으로 큰 기쁨을 누렸다”며 “그러한 즐거움을 경기도 관객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연극판에서 김광보 감독의 신념은 하나다. 바로 ‘미니멀리즘’이다. 이는 연출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배우한테 주는 디렉션이기도 하다. 거창해 보이지만 아주 쉽게 정리하자면 무대 위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자”이다. “무대 위에 형상화되는 연극도 마찬가지죠. 모든 걸 완벽히 갖춰서 관객에게 다 떠먹여 준다면 사실 이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관객이 한 번쯤 ‘이게 뭐지?’, ‘무슨 의미이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연극이고, 사실 그러려고 연극을 하는 게 아닌가, 제 마음속에는 늘상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만날 관객들에게 인사를 청했다. 다시 한번, 김광보 감독이 힘주어 말한다. “경기도민 관객과 잘 만나고 싶습니다. 도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연극을 올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무용으로 경기 천년 문화유산의 맥을 이을 터

김경숙 경기도무용단 신임 예술감독

경기도무용단이 새로운 리더를 맞았다. 춤꾼이자 교육자, 행정가로 무용계에서 충실히 그 이력을 쌓아온 김경숙 신임 예술감독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문화유산으로서 경기도 무용단의 가치를 드높이고, 미래 세대들에게 영감과 공지를 불어넣으며 또 다른 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의 포부와 열정을 들어봤다.

글_ 편집부 사진_ 이성원

경기도무용단 설립의 대면

“경기도무용단에 새로 부임하게 되면서 무용계의 많은 분들께 축하와 격려, 성원과 조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경기도무용단이 가진 위상과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생각에 부담과 설렘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단 예술단 예술감독,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통예능 분과 전문위원, 무용역사기록학회 회장 등 다방면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김경숙 감독이 인사를 전한다.

경기도무용단은 김경숙 감독이 진즉부터 관심 있게 지켜본 단체였다. 30년 역사를 가진 경기도무용단이 우리 무용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무용단의 정초를 세우신 고(故) 정재만 선생님, 뼈대와 골격을 만드신 조흥동 선생님 등 여러 예술감독님의 역량으로 경기도무용단은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산실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미래 유산의 산실로서 한국무용의 중요한 서사를 차근차근 만들어왔죠. 한국무용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무용단이라고 생각하며 늘 관심 있게 지켜봐 왔습니다.”

그렇기에 경기도무용단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뜨거우면서도 동시에 차갑다. 경기도무용단의 고유 색깔과 역량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외 정보들은 일부러 찾아보거나 찾아 듣지 않고 있다.

“혹여 생길지도 모르는 선입견을 경계하려고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부딪치고 겪으면서 무용단과 단원들을 제가 직접 알아가려고 해요. 신임 감독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감독은 손꼽히게 큰 규모인 경기도무용단의 단원들에게 되도록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 경력이나 연차가 다양한 단원들이지만 한 번쯤은 자신의 소리, 자신의 몸짓으로 무대에서 빛날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것이다.

“토요상설무대 같은 경우 여러 명이 춤을 추는 와중에서도 짧은 순간 개인 독무를 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신의 특성, 특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김경숙 감독은 자신을 향한 기대와 관심을 단원들과도 나눠 또 다른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준비를 마친 리더처럼 보인다.

경기도무용단의 확장에 기여할 터

김경숙 감독의 이력은 매우 인상적이다. 무용가로서 무대 위를 버선발로 사뿐사뿐 누볐던 세월과 함께 교육자이자 행정가로서 경계 없는 경험을 쌓으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욱 공고히 다져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개인적으로 보면 30년 넘게 무대를 떠나 본 적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있었을 때도, 학회지에 실릴 논문을 심사했을 때도, 무용계의 숙원인 국립무용원 건립추진단 실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했을 때도, 예술 감독직을 수행했을 때도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폭넓은 이력이라는 표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때마다 저의 달혀 있는 시야가 넓어지고, 안목 또한 확장되는 경험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문학적 소양과 영감’, ‘맥락과 흐름에 대한 이해’, ‘안목과 넓은 시야’ 등을 통해서 전통무용, 궁중무용, 신무용, 창작무용 등 한국무용의 미의식 체계에 대해 접근했다고 할까요. 동시대성과의 조응, 경계를 넘어서는 변화의 교차지점을 포착해 내는 에너지를 공급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무용단이 지닌 시간과 응축된 역사성을 통해 더 크고 넓은 세계로 확장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력들이 모여 더 나은 춤, 더 깊이 있는 춤을 위한 양분이 됐다”고 말하는 김경숙 감독의 이야기에 “이 모든 활동의 공통분모는 오직 ‘한국무용’이었다”는 극진한 애정의 말이 덧붙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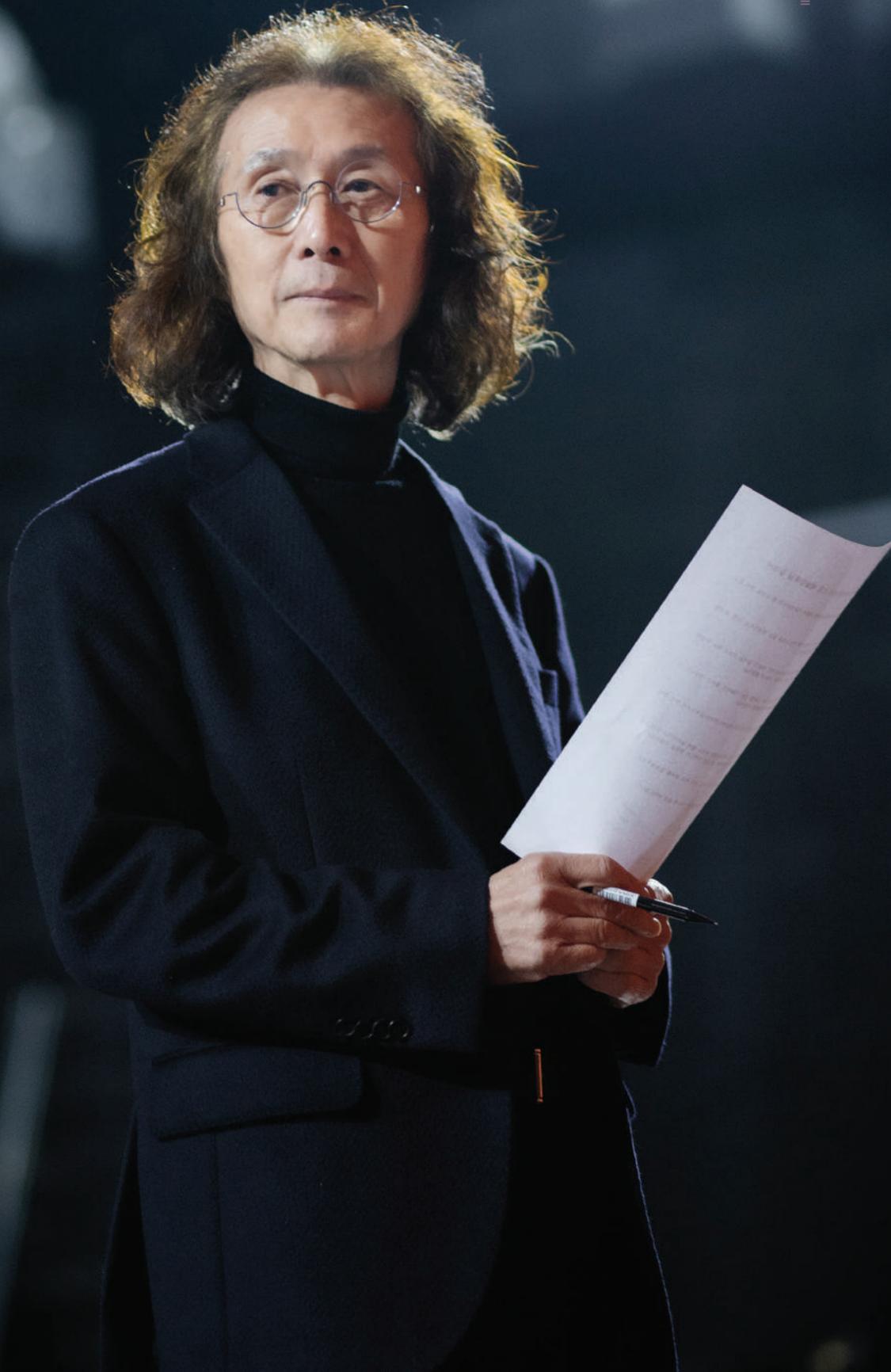


응축할 때 응축하고
풀어야 할 때 풀어내는,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내고
잠겨야 할 때 잠길 줄 아는,
채워야 할 때 채울 줄 알고
비워야 할 때 비우는
힘 있는 무용단,
영감과 자극을 빛내는
무용단으로서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민이 누리는 공연예술을 위해

경기도무용단의 이끌어가게 될 김경숙 감독은 3가지 이해를 운영의 전제로 들었다. “예술감독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과 가용할 자원을 기간 내에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민간예술단이 아니라 경기도민이 납부하는 경기도 세수로 운영되는 경기아트센터 소속 예술단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 무용단의 우수하고 빼어난 성과를 경기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예술가, 관리자,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두 방향에서 상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술단운영팀, 무용단기획실, 무용단 세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기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경기아트센터 소속 예술단과의 협력공연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낼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협의하려고 해요.” 김경숙 감독은 장소적·지리적 한계를 넘은 활동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극장 안 관객뿐만 아니라 극장 밖 관객(도민)을 위한 경기도무용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 천년의 문화유산이 미래 유산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갖고 경기도무용단의 인재 중 스타를 발굴하면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경기도무용단만의 시그니처 공연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한 김경숙 감독.

“응축할 때 응축하고 풀어야 할 때 풀어내는,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내고 잠겨야 할 때 잠길 줄 아는’, ‘채워야 할 때 채울 줄 알고 비워야 할 때 비우는’ 힘 있는 무용단, 영감과 자극을 빛내는 무용단으로서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는 그의 말에서 다부진篤심과 의지가 읽힌다. ◀



최고의 정점을 찾아가는 길

김성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신임 예술감독

장르는 많지만 경계는 없다. 도전과 자유로움으로 대표되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국악관현악과 서양 오케스트라의 '경계'를 걷는 지휘자, 고향의 정서로 국악의 세계화를 꿈꾸는 김성진 감독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집단과 개인, 창작과 전통을 넘나들며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준비를 마친 그를 만나봤다.

글. 편집부 사진. 이성원

변화가 필요한 시기

김성진 감독은 이미 생각이 많아 보였다. 취임 이전부터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지난 이력과 연주, 레퍼토리를 꼼꼼히 분석했고, 취임 이후에는 자신이 해야 할 것과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스케치를 다각도로 검증했기 때문이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지난 시간을 두고 “반짝거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어당긴” 부분을 이야기한 그는 그 이면을 두고 “단절의 시간” 또한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난 시간을 보면 작품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고 몰입해서 무대에 올린 게 보입니다.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그 레퍼토리들이 축적되어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지요. 우리는 농사를 짓되 그 수확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한 번 짓고 버리고 하다 보면 연계성이 없어서 그다음 진행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이는 서양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시즌마다 변화한다면 레퍼토리는 축적되지 않고, 청중들이 꾸준히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공공악단은 꾸준히 흘러가는 강물 같아야 해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에도 유수의 오케스트라처럼 언제든 지 꺼내 쓸 수 있는 레퍼토리 창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의 온화한 얼굴에서 강단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감독의 주도하에 앞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일까? 김성진 감독은 아니라고 답한다.

“저는 변화의 뒤에 있고 싶습니다. 제가 변화를 이끌어가면 감독이 빠졌을 때 조직은 중심점을 잃어버립니다. 앞이 아닌 뒤에서 변화를 추구하면 단원들이 스스로 길을 따라가면서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큰 물결을 거스르지 않게 될 겁니다. 궤도가 있으면 우리는 이탈 없이 달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어요. 장단점은 있겠지만 감독이란 자리는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서포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감독은 “자신의 악단생활이 청주시립국악단에서 1악장, 서울시청소년국악단에서 2악장,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서 3악장을 끝냈다”며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에서 4악장을 맞이한 지금 그러한 굵은 흐름을 꼭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감독이란 자리는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서포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은 답안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에요.
혼자 찾는 게 아니라 연주자들,
작곡가들과 함께 찾아야지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무대를 준비할 터

김성진 감독은 무엇보다 단원들의 생각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다. 아이디어를 얻고 무엇을 함께 이뤄 나가야 할지 단원들과 많은 대화를 해 그 길을 찾고 싶다는 것이다. “단원들이 벌써 좋은 이야기들을 해줬다”는 자랑(?)도 잊지 않는다. 그가 꾸는 꿈에서 단원들의 역할은 이미 준비가 끝난 듯 보인다.

향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무대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성찬으로 차려질 것이다. 순수 민요를 보전하고 싶은 욕심, 반주로 끝나버리는 관현악단이 아닌, 오페라 아리아나 랩파트 같은 포맷을 가진 곡을 만들어 그 자체가 하나의 레퍼토리가 되고 몇 개를 섞는다면 그 또한 레퍼토리가 되는 곡들, 한국 고유의 색깔을 가진 합창곡 등 실험 없이 이야기를 토하는 그의 열렬한 몸짓에서 벌써 수많은 무대들이 쏟아져 나온다.

“여기는 경기도이고 경기민요의 본산입니다. 물론 경기도 것만 하지는 않겠지만 메인메뉴는 이게 되어야 하지요. 판소리를 하는 분들과 대등한 분위기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서곡도 넣고 반주도 넣어 악단이 반주가 아닌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의 음(unison)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하면 그냥 반주처럼 될 수밖에 없으니까 복합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야죠.”

김성진 감독은 이런 형식으로 국립극장에 올렸던 공연을 이야기하며 “매우 입체적인 공연이 되더라”는 말로 듣는 이들의 기대치를 높였다. 모든 공연은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되며 시행착오를 거쳐 끊임 없이 발전하고, 그 안에 작곡가, 감독이 들어와야 전통적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의 음악적 고뇌의 산물이다. 천년 유산을 지향하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행보가 짐작된다.

가장 사랑받는 경기시나위 꿈꾸다

지휘자이자 총괄하는 자로서 김성진 감독은 늘 “매 순간 최고의 정점”을 찾아가는 걸 자신의 음악적 신념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그 정점이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까지 20년 이상 찾았지만 완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산조, 정악같이 오랜 세월을 거쳐 정립된 음악을 들어보면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걸 찾아가야죠. 거듭 시도하면서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거기서 업그레이드하면서 (모범답안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길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작곡가들도 많이 발굴했고 실험도 많이 했습니다. 감독은 답안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예요. 혼자 찾는 게 아니라 연주자들, 작곡가들과 함께 찾아야지요.”

그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계속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밀고 가야 한다고 말이다. 김성진 감독에게는 목표가 있다. 바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위상에 대한 것이다.

“대한민국 악단 중 우리 양상블이 가장 좋다, 레퍼토리가 가장 많다, 프로그램을 정말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악단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에요. 토요 4시 음악회도 다시 창설하고 우리 관현악단 모두가 무대 전체를 쓰면서 우리의 존재감도 다시 보여드리고 싶어요.”

김성진 감독이 진심을 다해 관객을 초대한다. 정성껏 밥상을 차려 대접할 터이니 일단 한번 오시라, 고 말이다. 우리 음악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씨줄로, 우리 음악을 향한 엄격한 담금질을 날줄로, 천년을 갈 우리의 음악 유산을 직조하고자 하는 김성진 감독의 새 무대가 벌써 기대된다. ◀



꾸준함과 긴 호흡으로 경기필 알리는 데 노력할 것

김선욱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신임 예술감독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김선욱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아 올해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악단을 이끈다. 이미 지난 1월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경기필과 <2023 신년음악회>로 호흡을 맞춘 김선욱 감독은 앞으로 5번의 마스터즈 시리즈를 선보이며 관객과 만난다.

글·사진·편집부



현은 유연하고, 관은 강력하다

바쁘다. 김선욱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신임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행보를 압축하고 에두른 표현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5년 만에 실시한 경기필 신규단원 공개 채용에 차기 예술감독 자격으로 참여하며 공연 기획 전반에 대한 주요 권한과 더불어 단원들의 연주 기량 평가, 신규단원 선발 등에 참여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에는 경기필 마스터피스 시리즈에 객원 지휘자로 포디움에 올랐고,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에서도 경기필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연주하며 관객들과 평론가들에게 크게 호평받은 바 있다. 특히 곡의 해석, 음향 구조 완성, 개성과 카리스마, 단원 및 관객과의 소통 등 지휘자로서의 능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그의 경기필 신임 예술감독 부임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이유다.

앞으로 2년간 함께할 경기필에 대해 그는 “제가 처음 무대에 선 게 1997, 1998년 정도이고, 경기필이 1997년 창단됐다”며 “악단과 제 음악적 성장 시기가 비슷하다”고 친밀감을 표했다.

“경기필의 현은 굉장히 유연하고, 관은 강력합니다. 또한 소통이 잘 되고, 단원들의 습득 능력도 굉장히 빨랐어요. 음악회를 준비하며 집중력이 굉장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첫 리허설이 끝나고 ‘굉장히 무서운 오케스트라 네요’라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설레는 일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음악을 해야 해요.
음악 안에는 호흡이 존재하고,
균형도 중요합니다.
첫 음부터 끝까지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도
기승전결이 확실해야
오케스트라에서 살아있는
음악이 나올 수 있죠.
그게 제가 추구하는 음악입니다.

음 너머의 의미를 찾는 젊은 지휘자

지휘자는 제도적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직업이 아니다. 지휘법은 가르쳐줄 수도, 배울 수도 있지만 실전은 전혀 다르다. 김선욱 감독은 “지휘자는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악보에 적혀있는 ‘음 너머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며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 음 너머의 의미를 아는 것은 지금도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며 자신의 행보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선욱 감독은 지난 3년간 많은 레퍼토리를 접해왔다. 객원 지휘자로 교향곡 6~7곡도 소화했다. 지휘자로서 많은 경험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젊은 피’ 답지 않은 탄탄한 이력을 쌓아왔다. 실제로 그는 피아니스트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지휘자로도 바쁜 일정을 보냈다. 2006년 리즈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로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린 것을 시작으로 영국 왕립음악원 지휘과에 입학해 콜린 메터스(Colin Metters)의 지도를 받았다.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부산시향, 대전시향 등 국내 우수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영국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페인 마드리드 엑셀렌티아 재단, 마카오 오케스트라 등과 호흡을 맞추며 지휘자로서의 역량을 증명했다. 또한 대만 국립 교향악단, 프란츠 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 제오르제 에네스쿠 필하모닉, 폴란드 슬라스카 필하모니아, 본머스 심포니 등의 객원 지휘도 앞두고 있다.

“음악에서의 본질은 10년, 20년 긴 호흡이기 때문에 40년 후, 50년 후가 기대되고 빨리 60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만 35세이니까 긴 호흡으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시작처럼 보이지만 스스로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보였고, 경기필과 연주하며 같은 곳을 향해 음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스토리와 기승전결 확실한 음악 추구

김선욱 감독은 “요즘 온라인 플랫폼이 중요하다 보니 매 공연을 녹화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많다 보니 그들의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경기필의 세계화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지난 시즌 경기필은 대부분 국내 연주자와 많이 공연했다. 앞으로는 해외 연주자들과의 공연을 통해 해외에도 입소문을 내겠다는 게 김 감독의 생각이다. 특히 각 공연마다 각각의 부제가 있지는 않지만 작곡가별로 연관이 있는 프로그램, 각 조성마다 연관이 있는 스토리텔링 등으로 매 공연마다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운 연주를 관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전 항상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팝업스토어 스타일의 음악가는 아닙니다. 살아있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제 기준이긴 하지만요. 스토리와 기승전결이 확실한 음악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휘자가 추구하는 바가 확실해야 오케스트라도 따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고집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객들에게 어떤 희로애락을 들려줄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한다는 김선욱 감독의 목표는 확고했다. 바로 꾸준함과 성실함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 보고, 또 다른 한계를 넘으면서 성숙해져 가는 게 목표입니다. 단순히 1~2년 안에 어디를 가서 연주하는 그런 가시적인 목표보다는 지금처럼 꾸준히 성실히 하다 보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음악의 근본적인 철학은 꾸준함과 성실함입니다. 무대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악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봄의 길목, 공공예술로 가는 길



#안양

안양의 정체성이 담긴 특별한 콘텐츠 국내 최초 공공예술 테마파크, 안양예술공원

안양예술공원은 국내 최초 공공예술 테마파크다. 안양의 정체성이 담긴 대한민국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콘텐츠를 간직한 곳으로 60점 이상의 세계적인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 현대미술과 어우러진 '녹색힐링'의 숲 치유 테라피 또한 이곳의 자랑이다. 역사문화와 예술을 품은 휴식과 사색의 공간, 즐거운 미식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내 인생 최고의 인생샷을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31 문의 031-8045-5496



#파주

365일 문화예술 in 헤이리 예술인이 완성한 아름다운 마을, 헤이리 예술마을

헤이리 예술마을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유명하다. 건축가들은 페인트를 쓰지 않고, 지상 3층 높이 이상은 짓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자연과 어울리는 건물들을 설계했다. 그래서 헤이리 여행은 건축물을 감상하는 데서 시작된다. 헤이리 마을을 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길을 따라 어슬렁거리며 산책하는 것이다. 인근에 오두산 통일전망대, 프로방스 마을 등을 둘러봐도 좋다.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0-21 문의 031-946-8551



#평택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걷는 호반길 낭만·풍류 소리길, 평택호 모래톱 예술공원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 관광단지 입구 쪽 평택호 관광안내소부터 도로 끝 모래톱 예술공원까지 약 1.5km 수변데크로 연결돼 있다. 다양한 볼거리, 문화공간, 편의시설이 조성돼 평택의 대표 관광지로 꼽힌다. 단지 내 한국소리터, 평택호예술관, 모래톱공원에서는 예술 작품 전시와 음악회 공연이 펼쳐져 낭만과 풍류를 즐길 수 있다. 국내 최초 소리 의자 10개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주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48 문의 031-8024-8687

GGAC's Theme
내다보기



30

프리뷰, 하나
경기필하모닉, 2024년 시즌 프로그램 공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

32

프리뷰, 둘
'2023 창작희곡공모' 당선작
낭독극 & 입체낭독극
창작희곡의 발견 낭독을 보다

34

리뷰, 하나
젊은 보수주의자, 김선욱호 출품
김선욱 음악감독 경기필 취임연주회

36

리뷰, 둘
치유와 희망을 담아 잘 차려 낸 음악 잔치상
<2023 경기아트센터 송년음악회>

STAGE ON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ON STAGE
프리뷰 하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2024년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김선욱 예술감독은 지난 1월 취임 기념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총 5번의 마스터즈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베토벤부터 말러, 버르토크까지 음악사조 전반과 함께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자 바딤 콜로덴코, 빈 필 악장 라이너 호넥, 파리 오케스트라의 수석 클라리넷 연주자 파스칼 모라게스 등 해외 유명 연주자들과 협연한다.

지휘자와 경기필 최고의 시너지

2024년 시즌은 전체 공연이 하나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피아니스트로 활동할 때도 시작과 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인 견고함과 아름다움에 중점을 뒀던 김선욱은 경기필의 2024년 프로그램도 하나의 긴 흐름으로 계획했다. 지휘자와 경기필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했는데, 고전부터 현대음악까지 익숙한 레퍼토리와 도전적인 작품을 적절히 배치하고, 협주곡과 교향곡의 결을 달리해 신선함을 더했다. 경기필의 첫 정기연주회는 '존경'의 뜻을 담은 베토벤으로 시작한다. 지휘자와 연주자가 서로 알아가는 데 베토벤 음악은 근본이자 기초라는 판단에서다. 베토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브람스와 리스트, 또한 리스트와 연결된 바그너, 바그너와 연결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슈트라우스와 연결된 말러, 이 모든 작곡가들과 연결된 버르토크까지 서양음악사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작곡가들을 2024년 한 해 동안 조명할 예정이다.

해외 유명 연주자들과 협연

총 다섯 번의 마스터즈 시리즈 중 김선욱 지휘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연은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다.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이후 독일의 작곡가들은 '영웅'이라는 주제를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형상화했는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교향시 '영웅의 생애'를 작곡했다. 전성기를 누리던 슈트라우스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독주 바이올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빈 필하모닉 악장으로 활동 중인 라이너 호넥이 1부 협연과 2부 객원 악장 역할을 동시에 맡는다. 라이너 호넥 외에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자 바딤 콜로덴코, 30여 년간 파리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 중인 파스칼 모라게스, 차이콥스키 콩쿠르 준우승자인 마크 부쉬코프 등이 경기필과 협연한다. 바딤 콜로덴코, 파스칼 모라게스가 국내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크 부쉬코프는 첫 내한공연이다.

살아있는 음악을 전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볼 수 없던 협연자를 섭외한 데에는 경기필을 더욱 세계적으로 알리려는 김선욱 지휘자의 야심이 담겨있다. 모든 협연자는 김선욱 지휘자가 함께 연주하거나, 연주하는 것을 객석에서 직접 봤던, 감명 깊게 연주를 들었던 음악가들로 엄선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음악'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경기필을 지휘할 때 경기필은 저와 음악적 지향점이 같은 오케스트라라고 느꼈고, 그 여운이 오래 남았습니다. 경기필과 함께하는 2024년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해 출사표를 던진 김선욱 지휘자의 소감이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24 주요 공연 레퍼토리



마스터즈 시리즈 I <베토벤 교향곡 3번>
일시 3/15(금) 오후 7시 30분 / 3/16(토) 오후 5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출연 피아노 바딤 콜로덴코 Vadym Kholodenko

마스터즈 시리즈 II <말러 교향곡 1번>
일시 5/23(목) 오후 7시 30분 / 5/24(금) 오후 7시 30분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롯데콘서트홀
출연 바이올린 마크 부쉬코프 Marc Bouchkov

마스터즈 시리즈 III <베토벤 교향곡 9번>
일시 6/21(금) 오후 7시 30분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출연 소프라노 황수미,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테너 손지훈, 바리톤 양준모, 고양시립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

마스터즈 시리즈 IV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일시 10/17(목) 오후 7시 30분 / 10/18(금) 오후 7시 30분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출연 바이올린 라이너 호넥 Rainer Honeck

마스터즈 시리즈 V <버르토크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일시 12/12(목) 오후 7시 30분 / 12/13(금) 오후 7시 30분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출연 클라리넷 파스칼 모라게스 Pascal Moragues



창작희곡의 발견 낭독을 보다



ON STAGE
프리뷰
특

'2023년 제3회 창작희곡공모'에서 대상을 차지한 이미경 작가의 <부인의 시대>와 우수상을 받은 박강록 작가의 <우체국에 김영희씨>가 오는 2월과 3월 각각 낭독극과 입체낭독극으로 관객과 만난다. 경기아트센터는 '희곡부터 공연까지'라는 목표와 침체된 연극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2020년부터 희곡 공모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희곡의 힘을 온전히 느끼다, 낭독극

경기아트센터의 '제3회 창작희곡공모'에서 대상을 차지한 이미경 작가의 <부인의 시대>와 우수상을 받은 박강록 작가의 <우체국에 김영희씨>가 각각 낭독극과 입체낭독극으로 제작된다. 전자인 낭독극은 희곡, 시, 나리오, 소설 등의 텍스트를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직접 읽어주는 형식의 공연이다. 일반적인 연극에서 사용되는 무대연출을 최소화하고, 배우의 목소리만으로 모든 감정을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 후자인 입체낭독극은 효과, 음악 등 연극적인 장치를 사용해 보다 실감 나게 희곡을 극으로 입체화시키는 형태의 낭독극이다. 과거 낭독극이 연극 제작 전 진행되는 쇼케이스 형태의 리딩 공연이었다면, 이제는 공연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며 희곡이 가진 온전한 문장의 맛과 행간에 숨겨진 뜻을 효과적으로 음미할 수 있다. 경기아트센터가 '창작희곡공모'를 통해 발견한 희곡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2020년 첫째 당선작 박진희 작가의 <위대한 뻘> 이 작품은 2021년 경기도극단 레퍼토리 공연으로 제작되어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오랜 기간 눌러 담아 써낸 이야기 죽음들

제2회 <2023년 창작희곡 공모전> 당선작 황정은 작가의 <죽음들>. 당선과 동시에 경기도극단의 제작과정을 거쳐 지난해 5월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관객과 만났다.



<부인의 시대>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이야기

대상 당선작 <부인의 시대>는 경기도 내 한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어느 피부 관리실에서 일하는 '부인'에 해당되는 네 여자의 이야기로 네 여자 모두 '부인'하고 싶은 비밀이 서로에 의해 발가벗겨지는 이야기이자, 네 여자 모두 이 세상에서 '부인'되는 이야기로 '부인'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구석의 구석까지 내몰린 자들이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담아낸 수작이다. 이미경 작가는 "구석의 구석까지 내몰린 이들은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두 발을 디딜 곳마저 사라질 때 호모 사케르(Homo Sacer·신성한 인간)가 마지막에 머물 수 있는 공간, 그곳은 어디일까?"라는 질문과 "하늘도 땅에도 속할 수 없을 때 갈 수 있는 유일한 곳, 이에 대한 고민, 디아스포라(Diaspora·조국을 떠나 타국에 거주하는 공동체집단)가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찾아 헤매다가 이 글을 쓰게 됐다"고 작품 의도를 밝혔다. 재개발을 단순히 지역의 이슈 정도로 다룬 것이 아닌 그 소재를 둘러싼 인물들의 관계, 지역 정서 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한 부분과 소멸·사라짐에 대한 것을 경기도와 결합해 펼쳐낸 것이 압권이다.

<우체국에 김영희씨> 우리는 많은 걸 주고받는다

우수상 작품 <우체국에 김영희씨>는 물건을 주고받는다라는 행위의 상징적인 공간인 우체국에서 사연과 마음이 오가는 순간을 담은 작품이다. 박강록 작가는 "현대인이 '누군가에게 받는다'는 이 문장을 가장 잘 체감하는 순간은 택배를 받을 때"라며 "우리는 많은 걸 주고받는다. 미소, 인사, 돈, 물건, 많은 것들에 다양한 마음을 담아서 주고 받는다. 물건을 주고받는다라는 행위의 상징적인 공간, 우체국에서 사연과 마음이 오가는 순간을 담아보고 싶었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창의적 소재로 시의성이 두드러진 작품이자 경기도 지역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참신하다. 추후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났을 때 호응이 기대된다. ◀

경기도극단 <창작희곡의 발견 - 낭독극>

일시 2/7(수) 18시
※ <부인의 시대>와 <우체국에 김영희씨>가
이어서 진행됩니다.
※ 공연 종료 후 작가와의 대화 진행 예정
입니다(약 30분).

경기도극단 <창작희곡의 발견 - 입체낭독극>

일시 3/6(수) 18시
※ <부인의 시대>와 <우체국에 김영희씨>가
이어서 진행됩니다.

젊은 보수주의자, 김선욱호 출범

ON STAGE
리뷰 하나

경기필 단원들의 시선이 젊은 음악감독 김선욱의 지휘봉에 쏠렸다. 최근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진을 기록한 티켓을 운 좋게 구한 경기아트센터 객석의 관객들도 숨죽인 채 새로운 지휘자가 만들어내는 음악에 귀 기울였다. 1월 12일 김선욱 예술감독 취임기념 경기필의 신년음악회 풍경이다.

젊지만 원숙함 갖춘 마에스트로

1988년생 김선욱은 10대 때부터 남다른 피아니스트였다. 16세 때 독일 에틀링겐 콩쿠르, 17세 때 스위스 클라라 하스킬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18세의 나이로 영국 리즈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최연소이자 최초 아시아인 1위 수상자로 기록됐다.

이후 베를린필,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악단들과 협연 무대, DG, 악첸투스에서 음반 녹음을 하며 스타 피아니스트로 입지를 다졌다. 남다른 연주 스타일도 주목 받았다. 베토벤, 브람스, 모차르트 등 한국 피아니스트들에게 취약한 독일 레퍼토리를 장기로 했고, 젊지만 원숙함을 함께 갖췄다.

김선욱은 어린 시절부터 지휘자를 꿈꿨다. 피아노는 그에게 오케스트라를 구현하는 도구로서의 약기였다. 독일적인 구축력으로 흔들림 없는 관현악적 피아노처럼 이제 그는 지휘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2021년 KBS교향악단을 지휘하며 데뷔한 김선욱은 본머스 심포니, 서울시향, 경기필 등 여러 무대의 포디움에 오르더니 올해 1월 경기필의 예술감독으로 취임했다. 피아니스트 때와는 달리 '젊은 지휘자'로 김선욱을 보는 시선이 많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악단을 책임진 지휘자들도 많이 있다. 로열 콘세르트헤바우에는 빌럼 멩엘베르흐가 24세 때 수석지휘자로 부임했다. 라파엘 쿠벨릭은 25세 때 체코필하모닉, 사이먼 래틀도 25세 때 버밍엄 시향,



김선욱 마에스트로

에서 페카 살로넨은 26세 때 스웨덴방송교향악단, 미르가 그라지니테 킬라는 29세 때 버밍엄 시립교향악단을 맡았다. "지휘는 60부터"라는 말을 남긴 정명훈조차 31세 때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커리어를 쌓았다.

젊은 지휘자와 거장 피아니스트의 만남

취임 연주회 첫 곡은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이었다. 발랄함과 익살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바로 경기필이 마시모 자네티의 지휘로 오페라 전곡을 연주했던 2022년이 떠올랐다. 자네티가 투명하고 날렵한, 원전

연주나 절충주의가 떠오르는 새로운 스타일의 지휘를 선보였다면 이날 김선욱과 경기필은 리듬이 살아있으면서도 묵직한 바다감이 돋보였다. 자네티의 터치가 느껴지면서도 향후 김선욱의 시그니처가 될지도 모르는, 꼭꼭 눌러 담는 의고적인 방향성을 떠올릴 수 있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김선욱과 등장할 때 박수의 온도가 따뜻했다. 2009년 5월 김선욱, 김태형, 김준희와 협연했던 백건우의 모습이 떠올랐다. 제자뻔 되는 후배들을 자신과 나란히 무대에 세운 백건우는 '이들을 보라, 클래식 미래다'라고 조용히 웅변하고 있었다.

15년 전 감동적인 만남은 이날 지휘자 김선욱을 응원하는 노 거장 피아니스트의 모습으로 이어졌다. 스크라빈 피아노 협주곡은 성실한 해석이었지만, 연주하면서 백건우는 자신의 피아노로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다. 담담하게 말하는 색채감을 김선욱, 경기필과 나눠 갖는 듯했다. 통상적인 협연자 앙코르도 사양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선욱이라는 무언의 시위처럼 보였다. 앞으로 김선욱은 이런 대선배 거장 피아니스트의 마음을 꼭 기억하고 정진했으면 한다.

경기필의 새로운 시대, 달을 올린다

메인 레퍼토리는 브람스 교향곡 1번이었다. 김선욱이 앙코르로 즐겨 연주했던 간주곡이 우선 떠오를 정도로 브람스 피아노곡은 김선욱의 장기다. 베토벤에게 느낀 부담으로 작곡에 20년 걸렸던 브람스의 이 교향곡에서 김선욱은 비슷한 처지를 느꼈을 수도 있다. 성시연,

마시모 자네티 등 쟁쟁한 전임지휘자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중에 태피스트리(tapestry·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처럼 신중하게 명곡을 작곡한 브람스처럼, 김선욱도 긴 호흡의 지휘를 예고했다. 템포나 진행도 21세기의 트렌드보다는 20세기 지휘자의 전통적인 해석에 가까웠다. 지휘의 보수주의자랄까. 완벽에 가까운 해석은 결코 아니었다. 단원들의 호흡이 맞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고집스러운 정도로 자신의 연주를 밀어붙인 부분에서는 그의 피아노 연주와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볼 수 있었다.

브람스 교향곡 1번은 1, 4악장보다 안쪽의 2, 3악장이 더 마음을 끌었는데 특히 2악장 말미의 매력적인 바이올린 솔로를 비롯해 객원악장 윤은솔의 활약이 돋보였다. 앞으로 마음에 맞는 악장을 선임하는 것도 김선욱 사운드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김선욱호 경기필은 이제 달을 올렸다. 안에서 결속과 신뢰를 공고히 하고 바람과 파도 같은 외적 현실과 싸우며 더 능숙해져야 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휘자 김선욱만의 개성과 감동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면 경기필의 새로운 시대가 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



글 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칼럼니스트.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고, 집에서 음반을 듣고 글을 쓴다. 학구적이지만 유리된 글보다 음악 애호가 부족(tribe)의 일원으로서 감동의 온기를 지속시켜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지향한다.



치유와 희망을 담아 잘 차려 낸 음악 잔치상

<2023 경기아트센터 송년음악회>

연말연시의 미련과 상념들

해마다 12월이면 공연히 들뜨거나 시골
벽적 부산하다. 빈번한 모임 속에 화려함
과 웃음은 넘쳐나는데 한편으로는 아쉬
움과 미련 섞인 상념으로 공연히 우울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
은 필자 개인의 것만은 아닌지 얼마 전 미국심리학회(APA)는 명절
이나 연말연시에 우울감이 생기는 심리상태를 '홀리데이 블루스
(Holiday blues)'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난데없이 웬 우울증 이야기나
고? 2023년 연말은 그 우울증 증상을 음악의 힘으로 가뿐히 치유
했음을 알고 싶어서이다. 지난 12월 27일 경기아트센터의 송년
음악회 덕분이다.
지휘를 맡은 임헌정 지휘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다.
그에게 음악은 정신을 배부리는 음식이자 치유의 약초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와 함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마련한 송년음악
식탁은 어떻게 차려졌을까. 한마디로 기대 이상.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 있었던 배부르고 맛있는 잔치상이었다.

흥겨운 잔칫상의 애피타이저, 카니발 서곡

드보르작의 '카니발 서곡'은 말 그대로 잔
치답게 활기차고 화려하며 열광적인 오
케스트레이션이 풍성했다. 민요풍의 선율
과 춤곡의 리듬은 밝고 경쾌하다. 다이내믹한 타악기 연주와 함께
제1주제가 알레그로(Allegro·빠르게)로 터져 나오는 관현악의 총주다.
번쩍번쩍 왕성한 에너지가 폭죽처럼 터져 나온다. 잉글리시 호른
과 플루트의 솔로 연주가 안단테로, 플루트와 오보에의 에피소드
는 감미롭고 차분하게 펼쳐진다.
유쾌한 서글픔도 묻어났다. 클라리넷과 호른이 5음계 '자연'의 주
제 선율을 만들어내고 트라이앵글, 탬버린, 심벌즈, 하프의 선율이
풍미와 감칠맛을 돋운다. 빠르게 시작한 도입부에서 점차 느려지
는 전개부로 이어지다가 다시금 화려한 재현이 반복되는 구성이
다. 인생은 한바탕 축제임을 상기시킨다. 나쁜 기억들은 잊고 나와
타인의 용서할 것들은 모두 용서한다. 음악 한 곡으로 마음이 한
껏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진다. 행진하듯 떠들썩하게 삶 속으로
뛰어들 의욕이 샘솟는다.

다채로운 사랑의 뷔페, 유명 오페라와 뮤지컬, 팝음악까지

서곡에 이어 사랑에 관한 유명 오페라
와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이어졌다. 바
리톤 김주택이 생각지 못한 관중석 어딘
가에서 이발사로 등장한다. 즐거움을 더하는 연출이다.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나는 거리의 만물박사'를 흥겹게
가창한다. 다양한 인물들을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다채로운 음높
이와 기교 그리고 이탈리아어 발성이 귀에 콕콕 박힌다. 익살과 해
학의 발랄함에, 긴 호흡의 장렬함까지 동반한다. 여기에 경기필하
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는 풍부한 표현력으로 그와 한 판 대화를
주고받는 듯 찰지다. 해피엔딩의 오페라부파와 서정적이고 빠르
고 막힘없는 벨칸토 오페라의 특징을 잠시 떠올린다. '행운은 당신
을 놓치지 않는다'는 노랫말도 가슴에 담는다.
세비야의 이발사가 사랑의 큐피드 역할을 한 것일까? 음악회의 연
주 목록이 오색 사랑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먼저 이를 수 없는 사
랑을 꿈꾸는 음악이다. 드보르작의 '달에게 부치는 노래(오페라 <
루살카> 中)'의 유도 동기가 신비로움을 더하는 하프 선율로 흘러
나온다. 물의 요정 루살카가 된 소프라노 박혜진이 서정적인 선율
로 사냥꾼 인간 왕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달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이어 등장하는 호른의 소리와 여러 금관과 목관의 소리
가 숲속의 풍경을 만들어내면 악기들이 모두 별빛처럼 반짝이는
듯하다. 플루트는 간절한 노래의 멜로디를 받아준다. 온 마음으로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달빛 은은한 풍경이 그려진다. 사랑을 믿지
않는 메마른 이들도 다시 사랑에 빠지고 싶은 순간을 제공해 준
다. 설사 그 사랑이 배신의 상처를 품었다 할지라도 말이다.

오색오미, 사랑의 테마를 음악으로

젊은 날의 사랑을 떠 올리게 하는 오페
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사랑이여 용
기를 주세요'가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
를 전한다. 말리면 말릴수록 더 뜨거워지고 강렬해지는 사랑. 당
당하고 용기 있는 줄리엣으로 분한 박혜진의 목소리는 청춘의 뜨
거움을 품고 더욱더 다이내믹하게 울려 퍼진다. 죽음도 두려워하
지 않는 불같은 사랑의 전율과 방향이 절절하게 전해진다.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의 '내 입술은 침묵하고'를 함
께 부르는 박혜진과 김주택의 이중창은 아름답고 멋진 앙상블을
이룬다. 숨겨려 해도 결코 감출 수 없는 것이 사랑일 테다. 시적인
가사가 메아리로 다가오고 아름다운 왈츠 선율이 원숙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완성한다.
김주택은 깊은 곳에서 울려 퍼져 나오는 웅장한 목소리로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투우사의 노래'도 들려준다. 역동적인 모습이 매력적이라 스페인어 감탄사 '올레'를 외쳐본다. 누군가는 이제 투우사의 기상을 품고 새해 떠오르는 붉은 태양처럼 새로운 사랑에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저 높은 성벽을 넘어서 아무도 가 보지 못한 곳으로 저세상을 향해 날아봐 날아올라."

뮤지컬계 독보적인 베테랑 뮤지컬배우 신영숙의 '황금별(뮤지컬 <모차르트> 中)의 한 소절이다. '황금별 장인'이라는 닉네임답게 호소력 짙은 음색과 파워풀하고 청아한 고음이 시원하다. 구속하거나 소유하지 않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생각하게 한다.

신영숙은 뮤지컬 <레베카>의 덴버스 부인의 넘버를 부른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대단하다. 묘한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에 힘입어 광기와 집착으로 무대를 한껏 채운다. 맹목적이거나 숭배에 가까운 사랑은 치명적이다. 음악으로 전해지는 내공 가득한 카리스마는 신영숙이 아니라 이제 극 중 캐릭터 덴버스 부인 그 자체로 다가온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팝송으로 우선순위에 드는 엘비스 프레

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는 1부 음악 식탁의 마지막 메뉴다. 영화 <블루 하와이>의 삽입곡이라 엘비스와 조앤 블랙먼과 하와이의 명소에 있는 듯한 순간이었다. 관객 모두가 두 손을 흔들며 낭만에 젖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역경을 이겨낸 승리의 용사처럼 2부를 장식한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은 2023 송년음악회의 대표작품이었다. 감성, 비애와 애수, 자유분방한 에너지와 극

적인 강렬함으로 어둠의 역경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교향곡이다. 도입부의 우수에 찬 클라리넷 솔로가 가장하다. 차이콥스키가 메모해 두었다던 '운명 또는 헤아릴 수 없는 신의 섭리의 완전한 복종'이란 말을 읊조리게 된다.

1악장은 삶의 역경을 담은 듯 단조로 시작해 어둡고 무거운 정서를 보인다. 운명의 동기 선율이 반복되며 변화무쌍하게 전개된다. 2악장은 호른의 황홀한 솔로에 이어 오보에의 맑고 또렷한 음색과 목관들의 앙상블이 풍성하다. 3악장은 당시 교향곡에 흔히 쓰이던 스케르초(scherzo·해학곡)나 미뉴에트(Minuet·17-18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춤을 위해 작곡한 3/4박자의 곡)를 쓰던 관례를 벗어나 왈츠가 연주된다. 어둠을 밀어내고 새로운 봄의 기운을 불어넣어 운명에 대면할 준비로 4악장은 밝은 '희망'을 전주한다. 팀파니의 몰아치는 연주를 시작으로 안단테에서 알레그로비바체를 거쳐 프레스토까지 빠른 전환으로 분위기를 쌓아 올라가며 찬란한 신세계가 열린다. 짧고 강렬한 보잉이 화끈하다. 아주 잠깐의 휴지(멈춤)가 매력적이다. 이어지는 마지막 악장은 트럼펫의 리드로 우렁찬 운명의 동기가 다시 펼쳐진다. 어둠을 몰아내고 밝아오는 태양을 향해 거침없이 '희망'을 이야기한다.

경기에서 사랑과 희망으로 맞는 새해 송년음악회의 주요 테마는 사랑과 희망이었다. 송년 메시지는 "일상 속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간다'"이다. 문화예술의 기회수도이자 변화의 중심인 기회의 경기에서 예술 향유의 총명한 기회를 누리게 해주는 한 겨울의 선물로 충분했다. 달빛이 정겨운 하늘 아래 마음과 영혼이 배부른 밤이었다. 예술로 총만해진 가슴들은 용기와 희망으로 더욱더 뜨겁게 새해를 맞을 것이다. ◀

글 ————— 강은아

경기아트센터 이사,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겸임교수, 부천문화재단 이사, 광명큰빛영화제·젠더와예술 문화연구원 대표, 문화공간CPR 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심의를 비롯해 문화민주주의를 꿈꾸며 전국 광역 및 지자체와 문화단체의 문화예술행사 관련 평가 및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



40
예술이 만난 인문학
대한민국에 꽃피는 살롱 문화
무엇이 이들을 행복하게 할까?

44
이달의 책과 음반
마실을 가다, 行
마실을 먹다, 食

46
컬처로드
경계를 넘어 새로운 창의를 열다

50
예술 알고리즘
알고리즘으로 꿈꾼 예술의 민주화
바자렐리가 펼친 망막 위의 마법

54
#공감태그
#독자참여#SNS공연리뷰



CULTURE ARTISTURE

대한민국에 꽃피는 살롱 문화 무엇이 이들을 행복하게 할까?

취미의 공유를 넘어서는 시너지, 살롱에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모이게 하는 힘이 있다. 살롱 문화에는 여가시간의 공유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에 대한 생각을 교류하는 전통이 녹아 있다. 살롱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지금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살롱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취미의 공유를 넘어서는 시너지

삶에 예술을 들여놓으면 행복해진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뻑뻑한 일상의 삶 속에서 벗어나 꿈틀대기 시작하는 자신의 본능에 대한 욕구를 찾고자 했다. 집과 일터가 아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제3의 공간, 살롱에는 자유정신과 카르페디엠이 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속박과 답답함을 느낄 때 일상의 탈출, 신선한 일탈의 갈망과 갈증을 느낄 때, 사람들은 자유정신이 살아 숨 쉬는 살롱에서 더 없는 해방감을 느낀다. 자유정신 속에는 기존의 틀을 파괴하고자 하는 일탈의 욕구와 뭔가 새로움을 향한 무한한 창조성이 공존한다. 파괴성이란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대한 불안과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닥칠지 모른다는 불행에 대한 인식이며, 창조성이란 이제껏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지 못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찾는 일이다. 살롱에서는 자유정신에 대한 깊은 영혼의 소리를 통해 성공에 대한 열망과 그것으로부터 매몰되지 않는 자신을 분리해 내는 능력을 배운다. 깊어가는 살롱의 밤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꽃핀다. 지나친 욕망으로부터 자제와 절제를 시켜주는 물뿌리개와 같다. 살롱에는 모든 인생이 다 녹아 있다. 서로를 환대하며 서로의 느낌을 편안히 나누는 곳, 살롱은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면서 그 자체가 따뜻한 매개체인 것이다.



랑부이에 후작부인(Madame de Rambouillet)의 살롱에서 문학작품을 발표하고 서로의 철학과 사상을 토론했던 당시의 문인들과 저명인사들



살롱 모임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프랑스어 살롱(Salon)은 매우 매력적인 단어다. 그 말속에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마담과 당대의 진지한 지성인들 그리고 문학, 미술, 음악은 물론이고 과학까지 포괄하는 그 시대의 모든 지식과 문화가 녹아 있다. 살롱 문화는 유럽 17~18세기 유럽 귀부인의 테라스에서 시작됐다. 귀족 출신 여성들이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단하게 차를 마시면서 시작한 살롱은 주인 마담들의 고상한 취향과 지식에 대한 열정으로 그림과 음악, 시와 문학 그리고 토론이 함께하는 학습과 사교의 문화공간이었다.

로코코 시대의 유럽 문화가 화려하게 꽃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살롱 문화를 주도한 마담들의 예술과 문화적 담론 덕분이다. 지성인들의 담론은 시대의 흐름을 꿰뚫고 시대 정신을 만들어내기도 했으며, 여성과 평범한 시민들도 역사와 시대정신에 눈뜨게 하는 학습의 공간이 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살롱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4~5세기 그리스 아테네의 젊은 귀족들은 스포츠를 통해 몸과 마음과 정신력을 일깨우는 동시에 지적인 문화 모임도 가졌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 《향연》을 보면 지식인들은 당시 화제가 되던 정치, 문화, 철학의 주제에 대해 와인과 차를 즐기며 담론과 토론을 나눴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이러한 문화는 로마 시대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대화의 장이던 플라자(Plaza)와 포럼(Forum)으로 이어졌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종교인과 지식인이 예술가들과 함께 아름다운 산문과 시, 음악을 향유하던 무젠호프(Musenhof)를 거쳐 프랑스의 살롱(Salon)이 생겨나는 데 큰 영향을 줬다.

살롱 문화와 스타마담들의 탄생

프랑스에서는 마담이, 이탈리아에서는 살로니에르(Salonniera)가 살롱의 편안한 토론 분위기를 만들며 모임을 진행했다. 최초의 살롱 마담은 1608년 랑부에 부인이다. 랑부에는 값비싼 조명과 화려한 장식품으로 꾸민 멋진 저택에서 소수의 귀족, 작가, 법관, 철학자, 성직자들과 함께 책을 읽고 시를 읊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했다. 만남은 곧 우아하고 세련된 화법으로 담소를 나누거나 문학작품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살롱 문화》의 저자 서정복 전 충남대 교수는 “살롱은 사교의 장(場)인 동시에 지성인들의 사상 교류의 장이 됐다”고 말한다. 당시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살롱은 폭발적 인기를 끌었고, 18세기 후반에는 살롱의 수가 800개가 넘을 정도였다.

랑부에 부인 이후로 프랑스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많은 ‘스타마담’이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했는데, 그중에서도 여성해방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마담 랑베르, 정계 진출의 야망을 가졌던 마담 탕생, 순박하고 겸허하며 예술적이었던 마담 조프랭, 재치와 지성으로 총만했던 마담 데팡 등을 꼽을 수 있다.

18세기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살롱을 운영했던 조프랭 부인(Mme. de Geoffrin)은 자신의 살롱에 철학자와 문학자, 예술가 등을 요일별로 초대했다. 고정적으로 운영되며 전 유럽에까지 명성이 자자했다. 음악가들도 살롱에서 후원자를 찾거나 귀족 계층, 다른 예술가들과 교류했는데, 특히 피아니스트 쇼팽의 일화가 유명하다. 쇼팽은 녹턴 등 살롱에 적합한 실내악곡을 여럿 작곡했는데, 몇몇 녹턴 곡은 살롱의 주최자에게 헌정하기도 했다. 쇼팽의 곡 선물을 받은 이는 19세기 파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살롱을 운영한 오스트리아 대사 부인 아포니(Apomy)다. 쇼팽이 운명의 연인이자 여섯 살 연상의 소설가 조르주 상드를 만난 것도 살롱에서였다.

무관의 여왕, 루이 15세의 총애를 받은 퐁파두르 부인은 많은 예술가를 지원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몽테스키외 등 가난한 사상가들을 지원해 백과사전을 집필하게 함으로써 당시의 일반 서민과 여성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결정적 역할을 한 시대사적 인물이기도 하다. 나중에 점차 정치색이 짙어지는 모임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살롱의 정체성은 누가 뭐라 해도 문화 지향적인 사람들이 모여 순수하고 즐겁게 교류했다는 점이다.



1728년 살롱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습. 살롱문화의 중심은 '마담(Madame)'이었다.



카밀-레오폴드 카빌로-라살, 살롱전(Le Salon de), 1874

살롱, 고품격 평생학습의 장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 낼 정도로 바쁘고 고단한 시대를 살아온 세대들이 이제는 조였던 허리끈을 조금씩 풀기 시작하면서 원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며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메세나를 비롯한 문화예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대기업에서는 최상위 VIP 고객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문화·예술 클래스 ‘살롱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오페라, 고전(古典), 예술, 미술 시장 트렌드 등 다양한 인문학적 주제를 VIP 고객의 품격에 맞게 구성해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참석하는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인들에게는 공부를 놀이처럼 즐기면서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평생 학습의 시대, 성인 학습은 고품격 놀이다. 각자가 경험하고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서로 나누며 공유하는 것이다. 일생을 통해 평생 학습하는 자세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변화무쌍한 질곡의 세상을 좀 더 인문학적으로 살지 않을까?

Salon



마담 퐁파두르

글 유혜선
대한민국 살로니에르 1호이자 인문학살롱 후마니타스 아카데미 대표컨설팅 대표. 15년째 문화계 명사들과 함께하는 와인 인문학 살롱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 《당당한 서비스》, 《블루스타킹: 잠자는 카리스마에 키스하라》, 《그녀의 명품 스피치》 등이 있다.

청량하고 산뜻한 공기, 젓은 나뭇잎 냄새,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뿜은 숨 그리고 힘을 뺀 텍스트와 멜로디. 오늘따라 출근길이 더 길게 느껴진다면, 내일도 오늘처럼 그저 그런 날일 거라 생각된다면...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산책일지 모른다. 한 손에 든 책과 음악이 동행한다면 금상첨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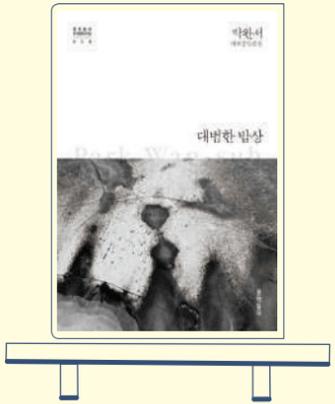
봄은 또 오고
저자 아드리앵 파를랑주 | 번역 이경혜 | 출판 봄별

그림책 《봄은 또 오고》는 한 사람의 인생 속 여러 봄을 중첩시키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표현해낸 작품이다. 작가는 2017년 국내에 출간된 《리본》으로 보드북의 물성과 책에 쓰이는 가름끈 한 줄을 활용해 매우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봄은 또 오고》도 보드북의 특성을 잘 활용해 잘려나간 부분과 구멍 난 부분을 통해 추억과 삶의 흔적을 환기시킨다. 책의 일부를 잘라내고 구멍 낸 것이 텍스트 너머까지 이야기를 확장시켜 주는 독특한 그림책이다.



공간 산책
저자 김종완 | 출판 김명사

호텔, 사무실, 병원, 백화점 매장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공간이 어떻게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행복'이라는 감정을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저자만의 고민과 디자인 노하우를 담았다. 디자인 작업을 할 공간을 고르는 일부러 공간을 누릴 사람들의 미래까지 예측해 만든 디자인 시나리오와 설계도 그리고 실제 구현된 공간의 모습까지, 하나의 공간이 탄생하기까지 전 과정을 만나며 무심코 지나쳤던 공간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대범한 밥상
저자 박완서 | 출판 문학동네

한결같은 동시대 감각과 남녀노소를 막론한 폭넓은 친화력, 삶을 적나라한 부분을 바닥까지 내려가 냉철하게 다루는 작가정신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일찍이 문학평론가 김윤식이 '천의무봉의 서술'이라 칭찬 바 있는 박완서 문학의 정수가 여기에 있다. 박완서라는 유일한 우주는, 다시는 볼 수 없지만 영원히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남았다. 특유의 유려하고 생생한 문체와 몽근하게 스며오는 날카로운 해안이 담긴 이야기들은 세기를 넘어서도 여전히 잔잔하게 빛난다.



베토벤의 사계, 영혼을 치유하다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국내 유일의 클래식 전문 채널 'KBS 클래식FM'과 '도이치 그라모폰', '데카' 등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을 보유한 유니버설뮤직이 손잡고 만든 우리 모두를 위한 힐링 베토벤 음반이다. <베토벤의 사계, 영혼을 치유하다>는 베토벤의 생애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로 분류하고, 각 계절의 분위기와 상징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4개의 CD에 나눠 수록했다. 베토벤의 음악이 희망의 음악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삶을 테마별로 보여준 명반이다.



봄의 왈츠

우리 음악사상 처음으로 창작된 현대 가요금작품집이다. 가요금의 대가란 명성에 걸맞게 그의 연주는 깊은 내공의 무사처럼 함부로 나대지 않는다. 절제되고 단아한 기품이 칼을 선불리 휘두르는 겁먹은 줄개들을 단칼에 베어내는 듯하다. 봄에 어울릴 숲, 봄, 석류집이란 곡들이 한가로운 봄날 연못 앞 정자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수많은 부류의 음악이 난립하는 요즘, 이런 음반은 깊은 산속 맑은 샘물을 찾아 한모금 마시는 그런 신선한 느낌이다. 딱 봄 같은 연주다.



봄의 왈츠 Classic OST

고요 속의 격정적인 카리스마, 피아니스트 윤재하의 피아노 앨범! 드라마 속 동시 발매작으로 극 중 캐릭터 피아니스트 '윤재하'를 탄생시킨 국내 최고의 피아니스트 3인의 환상적인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피아니즘 감성미학의 아티스트 이루마, 이탈리아와 한국을 오가며 클래식과 크로스오버를 넘나드는 감각적인 멀티플 아티스트 박종훈,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국내외 활동을 펼치는 열정과 감성의 피아니스트 M.I.K.멤버 김정원 등 3인 3색의 순수 감성 피아니즘이 공존하는 <봄의 왈츠> Classic O.S.T 앨범이다.

경계를 넘어 새로운 창의를 열다

예술작품은 세월의 흐름과 관계없이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고대 그리스에서 예술성을 가진 작품을 본질로써 '에르곤(ergon)'이라 하고, 작품을 둘러싼 비본질적인 주변을 '파레르곤(parergon)'이라 구분했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의 그림 그 자체는 에르곤이고 그림을 둘러싼 액자는 파레르곤이다.



ART N CULTURE 컬처로드

2018년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 후 절반이 파쇄된 '풍선과 소녀'



'얼굴없는 작가' 뱅크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인증한 <Girl with Balloon>의 원본 작품 ©뱅크시 인스타그램 @banksy

그림과 액자 사이의 주종관계

액자는 그림, 글씨, 사진 따위를 끼우는 틀이다. 작품을 위해 전적으로 봉사한다. 작품과 그 주변 환경을 구분해 작품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현실과 경계를 긋는다. 그림의 훼손을 막고 전시, 운송, 보관을 쉽게 한다. 액자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액자는 예술작품을 위한 엑스트라에 불과할까?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의견을 보자. 예술작품도 작품 이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복제된 작품을 볼 수 있지만 전시회에서 보는 감동에 미치지 못한다. 기쁨과 슬픔 등 관객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액자도 마찬가지다. 형태와 기능에 따라 예술작품과 불가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작품에 녹아든다. 어떤 액자를 쓰느냐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올릴 수 있고 떨어트릴 수도 있다. 액자의 기능과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고 의미와 역할을 다시 봐야 한다.

그림과 액자 사이에 넘나들 수 없는 경계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림은 액자 안에 갇혀 현실과 소통하지 못하고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지 못한다. 사실을 재현하고 모방함에 그친다. 액자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도 그림을 돋보이는 조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그림과 액자 사이에 주종관계가 고착되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부는 일부가 되고 일부는 전부가 되고 있다

작품과 액자의 경계를 허물면 어떨까? 영국 작가 뱅크시의 대표작 '풍선과 소녀'는 2018년 경매에서 약 16억 원에 낙찰됐다. 그 순간 뱅크시는 액자에 장착해둔 파쇄기를 원격으로 작동시켰다. 그림의 아래쪽 절반이 액자 밑으로 갈래갈래 잘려나갔다. 이 작품은 폐기됐을까? 그 반대다. 낙찰자는 그 작품을 원했고 잘린 형태 그대로 '스토리'가 있는 새로운 작품이 됐다. 3년 뒤 다시 경매에 나와 약 301억 원에 낙찰됐다.

작가 윤병락은 큼직한 사과들을 액자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그림으로써 손에 잡힐 듯 실감 나게 표현했다. 작가 앤드류 스킷은 그림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에 그치던 유리를 정과 망치로 정교하게 깨트려 그림과 어울리게 함으로써 작품의 극적 완성도를 높였다. 그의 또 다른 작품은 액자 오른쪽 막대를 5분의 4로 끊어 그림 안으로 기울게 하고 그것을 그림 속 남자가 두 손으로 떠받치며 미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옥외 디지털 광고판은 어떤가. 입체 제작된 광고는 마치 광고 속 주인공이나 장면이 화면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그림과 액자가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해 예술작품으로 승화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액자를 만들어온 임기연 작가는 그림을 품지 않은 액자만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뱅크시의 또 다른 작품들은 미술관을 떠나 담벼락을 도화지로 삼고 있다. 액자는 담벼락의 경계면과 모퉁이로 확장되고 있다. 담벼락은 누구나 지나가며 스치듯 볼 수 있고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대립과 균형을 중재하는 공간이다. 그의 작품은 예술과 대중의 경계를 자부하던 미술 전문가의 현학적, 지시적 해석 없이 대중을 만나 직접 소통하고 있다.



앤드류 스카트의 작품은 캐릭터가 액자와 상호작용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림은 액자 속을 나오려 하고 액자는 그림과 어우러지고 스스로 작품이 되려 한다. 그림과 액자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서로 끊임없이 넘나들고 소통하면서 창작의 수준과 가치를 높이고 있다. 과거의 경계는 누군가 무언가를 가두고 차별하고 경멸하는 틀에 불과했지만 이제 누군가 무언가를 연결하고 융합하고 승화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전부는 일부가 되고 일부는 전부가 되고 있다.

그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다

우리 삶의 경계는 어떨까. 원시인은 동굴에 살았다. 동굴에 있으면서 바깥을 내다볼 때 편안함을 느꼈다. 동굴 입구는 원시인과 세상을 연결하는 경계로써 액자 역할을 한다. 동굴 속의 삶이 편안함을 주지만 인류의 발전은 동굴을 뛰쳐나오면서 시작됐다. 예술작품과 액자의 경계가 흐려지듯 우리 삶의 이상과 현실, 진짜와 가짜, 현실과 가상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다. 그림은 자신을 가로막는 액자를 넘어 현실과 가상으로 들어가고, 액자는 그림과 어우러지거나 자신만의 시공간을 찾으려 한다. 모두 정당한 분출의 욕구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혀야 역사는 발전한다. 현대인은 대부분의 일상을 온라인에 접속해 일상을 살아간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무너지면 혼란하지만 창의가 더해지면 혁신이 되어 미래를 만든다. 경계를 무너트리고 배려와 협력을 높여야 진정한 창의가 샘솟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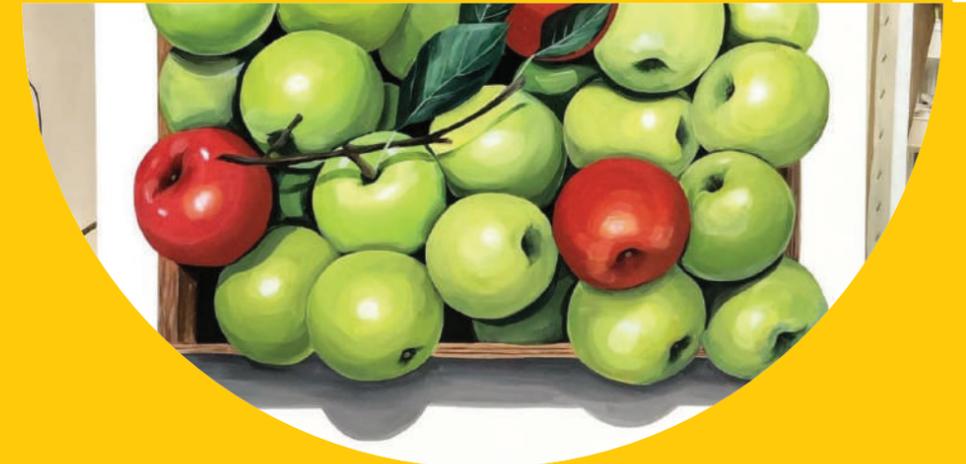
앤드류 스카트의 행위를 보고 있으면 희망, 기쁨, 혼란 그리고 두려움까지 다양한 감정을 느껴볼 수 있다.

글 —————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기술과 삶을 인문학으로 잇는 디지털 전문가다.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혁신과 공존의 신세계 디지털》, 《우리 엄마 착한 마음 갖게 해주세요》 등을 저술했다.



사과를 소재로 극사실주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윤병락 작가의 작품



디지털 옥외광고(DOOH·Digital Out of Home)는 디지털을 사용하는 만큼 좀 더 화려한 비주얼을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표현의 범위도 넓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무너지면 혼란하지만 창의가 더해지면 혁신이 되어 미래를 만든다. 경계를 무너트리고 배려와 협력을 높여야 진정한 창의가 샘솟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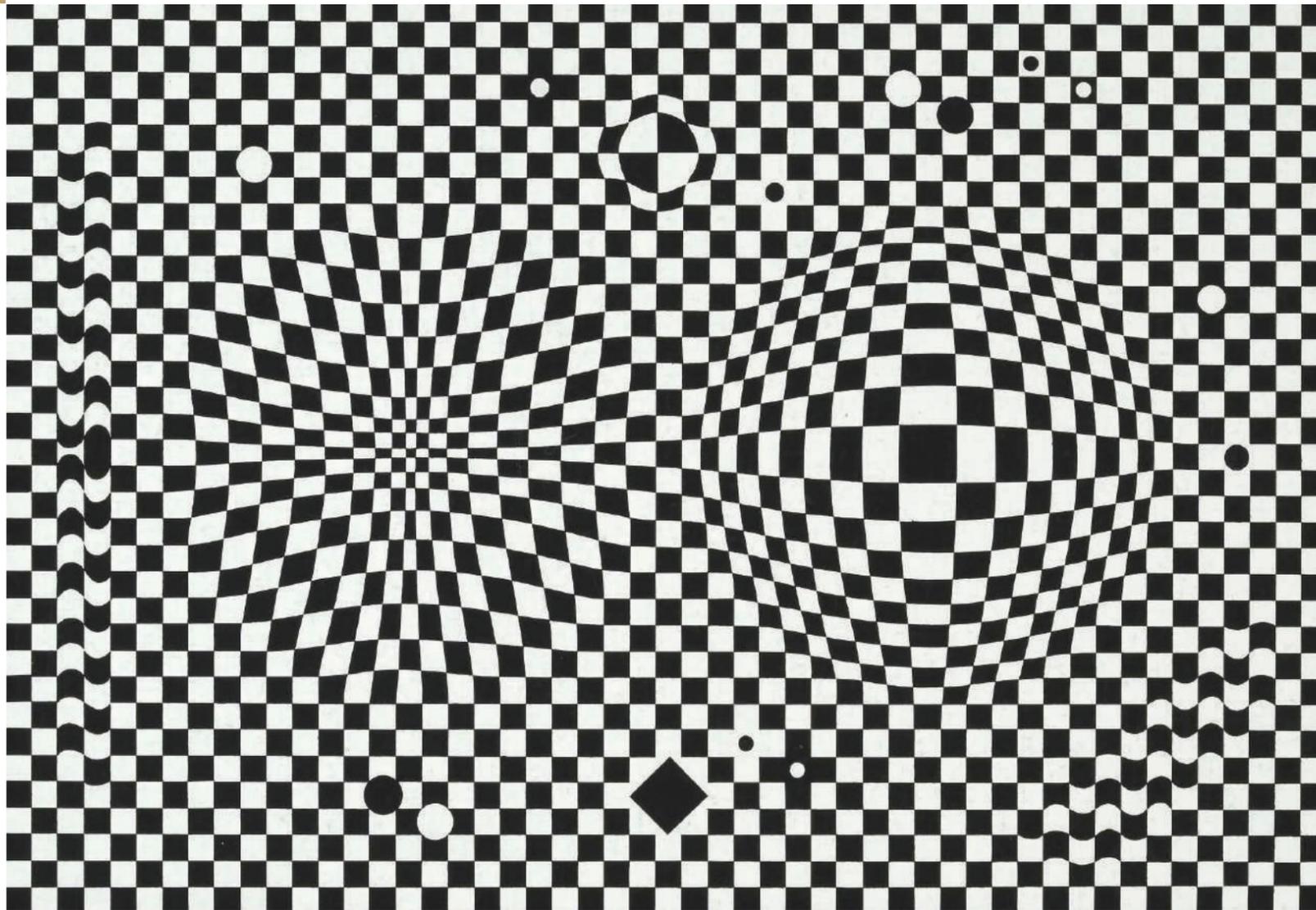


빅토르 바자렐리, 얼룩말, 종이에 과슈, 연필, 분필, 57x62cm, 1939 Victor Vasarely, 1939, Zebras, Gouache, pencil, colour and white chalk on paper, Vasarely Museum, Budapest

알고리즘으로 꿈꾼 예술의 민주화

바자렐리가 펼친 망막 위의 마법

빙글빙글 회전하는 듯한 화면, 돌출되거나 함몰돼 보이는 화면, 관객이 그림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듯한 화면 등. 20세기 추상미술의 한 장르인 옵아트(광학미술)의 창시자로 불리는 빅토르 바자렐리(1906~1997)는 도형과 색상만으로 2차원 평면 위에 3차원의 움직임을 창출했다.



빅토르 바자렐리, 직녀성, 종이에 실크스크린, 50.5x66cm, 1957 Victor Vasarely, 1957, Vega, Vasarely Museum, Budapest



바자렐리는 어디에나 있다

바자렐리의 이름은 몰라도 그의 작품은 모르기 어렵다. 202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테델 미술관에서 열린 바자렐리 회고전 슬로건은 “바자렐리는 어디에나 있다(Vasarely is Everywhere)”였다. 2019년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 퐁피두 센터, 2020년 스페인 마드리드 티센 보르네미사 국립미술관 전시에 이어 독일에서 회고전을 열며 유럽을 휩쓴 ‘바자렐리’가 33년 만에 대규모 전시로 한국을 찾았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고 있는 ‘빅토르 바자렐리 : 반응하는 눈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뮤지엄, 바자렐리 뮤지엄에서 건너온 200여 점의 작품을 통해 바자렐리의 대표작뿐 아니라 초기작까지 작품세계 전반을 선보인다. “헝가리 밖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전시”(마르톤 오로스 바자렐리 미술관장)로, 그래픽 디자이너 시절 선보인 그림부터 복잡하고 정교한 그의 대표작들, 바자렐리의 예술 이론과 사상 등 다채로운 면모를 볼 수 있다. ‘착시를 유발하는 기하학적 그림’ 정도로 바자렐리의 작품세계를 요약하면 서운하다. 바자렐리는 도형과 색상으로 이뤄진 자신만의 조형적 언어를 창조했다.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전에 수학적 계산과 과학 이론을 토대로 컴퓨터로 코드를 짜듯 색상과 형태를 정교하게 그려 넣어 미묘한 변화와 착시를 일으키는 화면을 만들어냈다. 현대미술, 그래픽 아트, 상업 디자인과 패션에 이르기까지 바자렐리가 미친 영향이 크기에 ‘바자렐리는 어디에나 있다’는 말은 성립한다.

**자신만의
조형 언어,
플라스틱 유닛**

헝가리 태생 프랑스 화가 바
자렐리는 1930년 파리로 이
주하면서 그래픽 디자이너

와 상업 광고 디자이너로 성공을 거뒀지만 화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옹아트의 길을 개척했다. 전시에선 바자렐리의 조형적 실험이 발전·변화하는 모습을 단계적으로 볼 수 있다. 선만으로 화면에 입체감을 부여하던 바자렐리는 흑백의 사각형으로 옹아트를 '발명'한다. "사각형을 약간 회전시켜 마름모를 만들어 새로운 환상적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바자렐리는 작품만큼이나 자신의 예술적 방법론과 이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눈이 돌아가게 만드는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그림들을 탄생시킨 바자렐리의 '예술 사상'에 대한 설명도 작품의 발전 단계별로 잘 이뤄져 있어 흥미를 더한다.

알고리즘과 순열을 이용해 '방정식'을 풀듯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당시 과학과 기술 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바자렐리는 과학 지식을 응용해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수학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과 순열을 이용해 기하학적 형태 시스템을 설계해 작품을 구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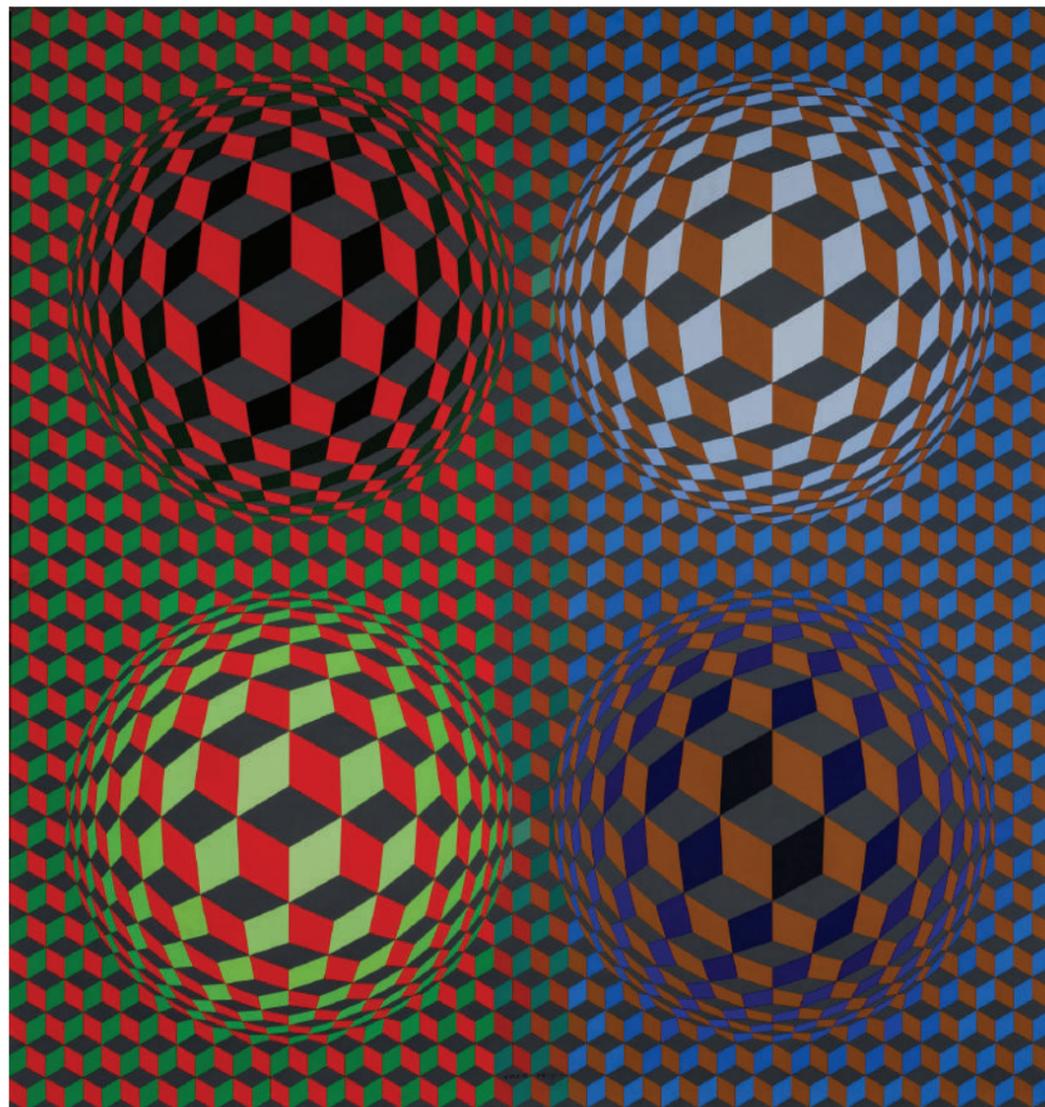
흑과 백을 대조하거나 몇 개를 골라 순서를 고려해 나열하는 순열, 색상과 모양에 일정한 번호와 코드를 부여해 작품을 제작했다. 혼합하지 않은 순수한 색상 220가지 색조만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다.

전시된 작품 '티바를 위한 구성 프로그램'(1979)에선 바자렐리가 만든 복잡한 '알고리즘'을 볼 수 있다. 바자렐리는 자신만의 조형 언어 '플라스틱 유닛' 개념을 개발하기도 했다. 색과 형태의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조형 단위를 만들어 '색채 형태 알파벳'(Color From Alphabet)이라 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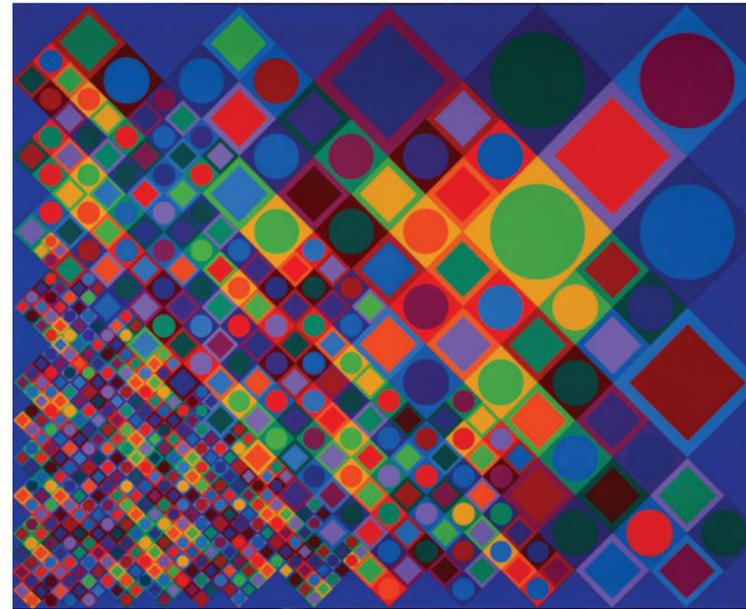
"플라스틱 유닛은 감각의 최초 형태인 아름다움의 추상적인 본질이다. 이것이 예술에 의해 상상되면, 이는 그것이 대변하는 세계의 시적 등가물인 예술 작품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자렐리의 예술론은 1955년 발표한 '엘로우 메니페스토(노란 선언문)'에 드러나 있다. 마르셀 뒤샹, 알렉산더 칼더, 만 레이, 바자렐리 등이 참여한 1955년 4월 열린 전시

● '착시를 유발하는 기하학적 그림' 정도로 바자렐리의 작품세계를 요약하면 서운하다. 바자렐리는 도형과 색상으로 이뤄진 자신만의 조형적 언어를 창조했다.



빅토르 바자렐리, 스트리-오트, 캔버스에 아크릴, 211x191cm, 1979 Victor Vasarely, 1979, Stri-oet, Vasarely Museum, Budapest



빅토르 바자렐리, 마르상-2, 캔버스에 아크릴, 202x253cm, 1964-1974 Victor Vasarely, 1964-1974, Marsan-2, Vasarely Museum, Budapest



빅토리 바자렐리, 두플라, 캔버스에 아크릴, 210x114cm, 1970-1975 Victor Vasarely, 1970-1975, Doupla, Acrylic on canvas, Vasarely Museum, Budapest

회 '르 무브먼트(Le Movement)'에서 바자렐리는 전시 기획까지 도맡아 미술 이론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담은 전시 개막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바로 '엘로우 메니페스토'다.

'엘로우 메니페스토'에선 바자렐리가 꿈꾼 '예술의 민주화'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선언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다. "예술적인 창조의 개념은 장인적인 창조 과정 및 작가가 창조한 유일한 작품이라는 신화와 연계되곤 했지만, 이제는 재창조, 증식 그리고 확장 가능성의 견지에서 묘사되고 있다."

예술의 재창조, 증식, 확장을 통한 '예술의 민주화'가 바자렐리가 꿈꾼 것이었다. 마치 프로그램 코드를 짜듯 작업을 도식화한 것도 예술의 민주화에 대한 철학 때문이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작품**

바자렐리는 소수의 부유층만이 예술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많은 사람들

이 예술을 누릴 수 있게 자신의 작품이 재현되고 재생산될 수 있기를 바랐다. 바자렐리는 "조형예술은 산소, 햇빛, 비타민처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일무이한 작품'보다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작품'을 원했다.

바자렐리는 자신의 작품이 프로토타입에 따라 재현되고 재생산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빈부 격차와 성별, 연령 등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다. 전시장엔 바자렐리가 자신의 작품을 실크스크린, 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변형한 작품들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바자렐리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바자렐리는 공공 건축과 도시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기 작품의 복제와 적용을 시도했다.

"예술가의 목표는 후대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현재와 미래에 널리 퍼질 아이디어에 기여하는 것이다." 바자렐리가 한 말이다. 돌이켜보면, 바자렐리는 두 가지를 다 이룬 것 같다. ●

글 이영경
경향신문 문화부에서 미술과 종교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문화부에서 이전에 문학과 출판을 담당했으며,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

BIMONTHLY FEED

#독자참여
#SNS 공연리뷰

엄마 아빠와 함께 간 공연장. 다섯 살 딸은 그림자극과 함께하는 키즈 클래식 <호두까기인형>을 본 이후로 <호두까기인형> 동화책을 아주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국악의 깊은 아름다움을 일깨워준 <반향 2023 : 치유>는 또 어떻게요? 많은 덕후님들이 열광했을 경기아트센터 공연 현장 속으로 떠나봅시다.

Art N Culture #공연테크

queenbee0703

군무의 다양함, 복잡함이 대박

샌드아트

경기도무용단의

퀄리티 높은 공연

#경기도무용단 #비임존재 #공연볼때핸드폰끄자고

마치 현대미술관에 입장한 것 같은 기시감을 느꼈다. 특히 설치 벽의 다양한 색상의 조명은 무용수들이 착장한 채도 높은 의상과 함께 우리 '존재'의 다양성과 생명력을 '대유'해 표현한 듯 했다. 음악에서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들리던 '노이즈'가 아주 매력적이었다. 이번 공연 준비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군무의 다양함, 복잡함이 대박^^) 수없이 흘리셨을 무용단분들의 땀방울에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사색적인 타이틀이었지만, 공연 막바지에는 이 타이틀일 수 '밖에' 없겠다 싶을 정도로 많은 영감을 얻었다. 수고 많았었고, 2024년에도 경기도무용단의 퀄리티 높은 공연 기대해본다♥

lullulalla_o

멜크 드디어 꼬을!!

왕자 같은 우리 아들

공주 같은 우리 딸

#호두까기인형 #밀린피드올리기

크리스마스에 급으로 예매한 공연, 호두까기인형! 맨 끝자리였지만 소극장 2층이라 시야가 막히지 않고 불편함 없이 관람함. 오랜만에 공연 관람이라 소극장으로 가면서 두근두근~ 아 이들도 크리스마스에 공연이라 더 설렘 가득^^ 연주회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보면서 지루해하지 않게 그림자극이 함께 있어서 집중해 볼 수 있었음. 크리스마스에 복잡해서 이동하기도 어려운데 가까운 경기아트센터 예매한 좌석에서 쾌적하게 보내서 넘 좋아♥~~ 굿뜨!!! 크리스마스 때마다 공연 관람하는 것도 좋을 듯@@

kylie_eilyk

백건우 선생님의 협연

선옥김 덕후^^

넘 좋아서 숨뱄할 뻔

2024 NEW YEAR'S CONCERT

1.12 FRI 19:30

센터 대극장

MOZART, SCRIABIN, BRAHMS

♥ #공연 #김선옥 #백건우 #일상 #클래식공연

선옥김 취임연주회♥ 선옥김 덕후는... 수원까지 공연을 보러 갑니다^^ (조기 퇴근해서 파스타까지 먹음^^) 넘 좋았던 백건우 선생님의 협연!! 3악장 듣다가 숨뱄할 뻔했다. 기다리던 브람스 1번은 말해 뭐해~~

hyunjoo_cheong

한 해를 돌아보는 치유의 음악회

국악의 향연.

명상의 시간

국악의 깊은 아름다움

#반향2023치유 #명상의시간 #국악 #국악의향연

프로그램의 모든 연주곡들이 한 곡 한 곡 버릴 것 없이 국악의 깊은 아름다움을 일깨워준다. 명상의 시간으로 나를 안내하며 치유와 희망을 이끌어냈던 멋진 공연!

j.cecilia_

완전 재밌자나~

1열에서 보는 행운이러나~

#발레판타지아 #경기아트센터 #balletfantasiainchristmas

역시 윤별리노님 최고! 1열에서 보는 행운이러나~ 공연정보 올려주셔서 바로 갯! 지난번 현희리노님과 돈키호테와는 또 다른 느낌! 오기서 호두로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카리스마 넘치는 키르멘 황유빈 발레리나님! 너무 멋있었다♥ 인형요정 3인무는 처음 보는데 완전 재밌자나~ 형준쌤 학원에 계시는 때 클래스 못 들어본 게 아쉽ㅠㅠ



GGAC GIFT

여러분의 소중한 리뷰를 <예술과만남>과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담긴 사진**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경기아트센터 #문화예술 #공연 등 **해시태그 달면 참여 완료!**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즈 시리즈

베토벤 교향곡 3번

지휘 김선욱 | 피아노 바딤 콜로덴코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R. Wagner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 1막 전주곡

Lohengrin, Prelude to Act I WWV 75

F. Liszt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2번 A장조, 작품 125

Piano Concerto No.2 in A Major, Op.125

L. v. Beethoven

베토벤 교향곡 3번 E♭장조, 작품55 '영웅'

Symphony No.3 in E♭ Major, Op.55, "Eroica"



2024
3.15 FR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9:30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예술의전당 1668-1352

문의 031-230-3324

관람가 초등학생 이상

R 8만원 S 6만원 A 5만원 B 3만원 C 2만원



GGAC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58

GGAC VLOG

꺄! 경기아트센터 취업 치트키
공채합격 뽐내기

60

담당자의 노트

여전히 현장에서 배운다
무대음향 담당자의 노트

62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뉴스

64

CALENDER

2·3월 주요 공연 일정

66

예술과만남 ON!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예술과만남

GGAC STORY



꼭! 경기아트센터 취업 치트키

: 공채합격 뽀개기 VLOG

GGAC STORY GGAC VLOG



지난해 경기도 산하 24개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 공채에서 62.33: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에 성공한 신입사원 3인방이 전하는 경기아트센터 공채합격 노하우 전격 공개! 이들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솔직담백한 입담으로 취준생들에게 정성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경기아트센터 입사를 원하는 이들이 들어야 할 필살기를 지금 공개한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곳, 경기아트센터의 슈퍼루키, 신입사원입니다. 많은 취준생분들이 경기아트센터 공채 입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먼저 입사한 신입사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경험과 준비과정을 솔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2

경기아트센터 직원채용은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합격 발표까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으로 진행됐고, 이어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이 이뤄졌어요. 각 과정이 긴장의 연속인 만큼 평소 꾸준한 관심과 준비, 체력과 마인드관리가 필요합니다.



#4

공공기관은 대부분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CS 시험을 치르는데요. '23년도 경기아트센터 필기시험은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등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됐습니다. 기출문제집 등을 통해 문제유형을 파악한다든지, 모의고사 등을 풀어본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선택과 집중!



#3

자소서도 중요한데요. 자신을 표현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문항 모두를 관통하는 스토리를 잘 짤다면 좋은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연예술계 동향이나 면접 심화질문 등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논문 등을 찾아본다면 좋은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꿀팁입니다^^

공고부터 채용까지 약 2달 정도 걸려요!!



#5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관문 면접이겠죠^^ 공연축제, 문화사업, 대외활동, 유관기관 업무 등 관련 분야의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결과적으로 지원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자신의 경험과 함께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게 중요해요.



#6

지금까지 경기아트센터 공채합격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지금 당장 도전하고 싶지 않나요? 앞으로도 실력과 역량을 갖춘 많은 분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예비 합격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곧 만나요!!



김다빈



송현정



염한글

경기아트센터 신규 입사자들 기획조정팀 송현정 주임은 기관 경영 평가, ESG 경영 담당, 경기도-도의회 업무보고 자료, 경영공시 등을, 문화기획팀 김다빈 주임은 찾아가는 문화복지사업 기획 운영, 사무 등을, 홍보전략팀 염한글 주임은 《예술과만남》 제작, 방송매체, 티켓 프로모션, 보도자료 작성, 소통관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여전히 현장에서 배운다

무대음향 담당자의 노트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되고 처음 맞이하는 2023년 송년 시즌. 무수한 대관 일정과 함께 2건의 자체 제작공연에 참여하게 됐다. 12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반향 2023, 치유>와 공연기획팀 <2023 송년음악회>의 무대음향 준비 과정을 통해 공연 현장의 생생함을 느껴보자.

국악관현악의 공연음향 디자인

2023년 12월 2일과 3일 대극장에서 진행된 <반향 2023, 치유>는 2023 예술단 레퍼토리 시즌제 공연의 마지막 작품으로, 원영석 지휘자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국악 그룹 앙상블 시나위의 협연으로 구성된 공연이다. 국악관현악은 서양 오케스트라와는 달리 원음만으로 악기 간의 레벨 밸런스를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악기마다 마이크를 개별로 설치해 확성음의 밸런스를 맞추는 방식으로 음향 디자인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번 공연은 악기마다 마이크를 개별로 설치하긴 하되, 클래식 오케스트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음향 반사판(acoustic shell)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연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음향 반사판은 연주소리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 객석 쪽으로 연주음이 전달 되도록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원음 어쿠스틱 공연의 사운드를 위한 무대장치이기 때문에, 확성공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필자는 공연 사전 준비과정에서 “국악관현악 공연에 음향 반사판을 설치하고 마이크를 이용해 확성을 병행하는 방식은 원칙적인 음향 디자인에 맞지 않는다”고 사전에 기술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리허설과 공연을 진행해 본 결과, 연주자 모니터에 악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전체적인 사운드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으며, 악기의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과정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술적인 원칙과 지침에 따라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공연음향을 디자인하는 태도를 한 번쯤 바꿔보고, 때로는 기술적 지침을 약간 비껴가더라도 현장 상황에 맞춰 다른 방법을 적용했을 때, 의외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공연이었다.



<반향 2023, 치유>

GGAC STORY
담당자의 노트



<2023 송년음악회>



<2023 송년음악회> 도면

원칙과 이론. 현장에서의 중요한 대처

공연예술은 종합예술이다. 배우, 연주자, 연출, 기획, 스태프 등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조율해 완성하는 작품이다. 연기의 원칙, 연출 이론, 기술적 지침과 같이 책과 사전 교육으로 습득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연 준비 작업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리허설과 현장 준비 작업을 통해 직접 조율하면서 얻어내는 새로운 방식이 의외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현장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반복되어 또 하나의 원칙과 지침으로 재생산되는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현장이지 말입니다”라는 말을 되새겨보게 된다. ◀



글 정주현
(경기아트센터 무대기술팀 무대음향 부장)
무대기술팀 음향실 소속으로, 2004년 경기아트센터에 입사해 20년 동안 음향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여러 장르가 혼합된 공연음향 디자인

2023년 12월 27일 <2023 송년음악회>가 대극장에서 열렸다. 임헌정 지휘자와 경기필, 소프라노 박혜진, 바리톤 김주택, 뮤지컬 배우 신영숙이 협연하는 공연이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공연과 마찬가지로 이 공연에서도 당일 현장 리허설에서 음향적인 이슈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공연장 환경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는 음향 반사판을 설치하고 어쿠스틱 원음으로 공연을 진행하는데 협연곡 중에 드럼,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 신시사이저가 같이 연주하는 뮤지컬곡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연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악 협연곡과 교향곡은 원음공연으로 진행하지만, 뮤지컬 협연곡은 가수가 마이크를 사용해 스피커로 확성해서 진행한다.

어쿠스틱 원음 공연 상황에 익숙한 오케스트라 단원과 클래식 성악 협연자는 뮤지컬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연음량이 작게 연출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다. 전체적인 공연의 음량 에너지도 프로그램에 따라 들쭉날쭉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리허설 이후 성악, 뮤지컬 협연자분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공연 프로그램 간에 최대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음량 밸런스를 맞춰 공연의 에너지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조율했다.

공연 전, 오케스트라에는 현악기 파트와 목관악기 파트를 위주로 마이크를 군데군데 설치해 음량이 큰 밴드 사운드와 밸런스를 맞춰 보완했고, 성악가 협연자분들에게도 성악가용 전용 마이크를 사용해 뮤지컬 협연의 사운드 에너지에 뒤처지지 않도록 음량을 보강했다. 공연 결과, 공연 음향 전체의 에너지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고, 프로그램별 연주자와 관객 모두, 만족할 만한 공연 음향의 사운드를 제공할 수 있었다.

GGAC NEWS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경기아트센터의 활동과
반가운 소식, 그리고
경기도예술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www.ggac.or.kr

02+03
2024 VOL.166

GGAC Story GGAC NEWS



경기도극단 김광보 감독,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김선옥 감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김성진 감독, 경기도무용단 김경숙 감독(좌부터)

경기아트센터 산하 4개 예술단 예술감독 신규 취임

2024년 1월 1일, 경기아트센터 산하 예술단 경기도극단, 경기도무용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예술감독 4인이 취임했다. 채용 절차에 따라 경기도극단에 김광보, 경기도무용단에 김경숙,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에 김성진,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김선옥이 임명됐다.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김광보 감독은 서울시극단, 국립극단 등의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공공예술단체에서 역량을 쌓았고, 예술성과 단체 관리능력을 두루 인정받아 왔다. 김경숙 감독은 2022년부터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단 예술단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문화외교의 최일선에서 전통무용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유산 고유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알리는 데 앞장선 바 있다. 김성진 감독은 제7대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국악관현악과 서양오케스트라의 '경계를 걷는 지휘자로 불린다.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김선옥 감독은 서울시향 등 국내 우수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영국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호흡을 맞추며 지휘자로서의 역량을 증명했다.

이렇듯 신규 취임한 감독들은 각 공연예술 분야에서 이룩한 화려한 이력과 깊은 내공을 바탕으로 경기도예술단을 이끌 예정이다. 뛰어난 예술가들이 수장을 맡아 경기도예술단의 역량과 작품이 한층 도약할 것을 기대하며, 2024년 새로운 예술감독들과 펼쳐는 경기도예술단의 무대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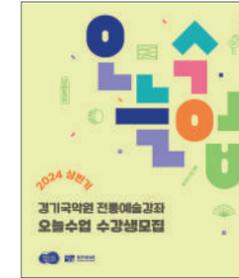
경기아트센터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출연단체 공모

경기아트센터에서 '2024년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출연단체를 2월 중 공개모집한다. 지난 2003년부터 운영된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은 경기아트센터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도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찾아가 문화예술공연을 펼치는 등 더 많은 경기도민이 공연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다채로운 공연 무대를 기획 중이며 함께 할 지역예술단체 공개모집을 통해 만나보려 한다. 10여 개의 단체를 공개모집하며, 선발된 단체들은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문화나눔>, <문화쉼터>, <문화피크닉> 등 연간 사업에 함께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2인 이상의 예술가로 구성된 공연단체로, 경기도 지역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 소재 단체로 제한한다. 공연물의 장르에는 제한이 없으며, 경기도 내 다양한 실내외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는 60분 분량의 공연 제공을 요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www.gg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국악원 전통예술강좌 <오늘수업> 1월 개강

2024 상반기 경기국악원 전통예술강좌 <오늘수업>이 1월 8일 개강해 올해 6월까지 진행된다. 2023년 12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10일간 수강생을 모집한 경기도 대표 국악예술교육프로그램인 <오늘수업>은 장르별, 대상별로 운영되며, 총 21회 수업으로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강좌는 △성인반(해금, 대금, 가야금, 설장고 입문·심화, 한국무용 입문·심화·작품, 팽과리, 경기민요, 판소리)과 △어린이반(한국무용, 가야금, 사물놀이, 판소리) 총 15강좌로 구성됐으며, 주 1회 총 2주 교육과정이다. 수강료는 6개월 과정 기준 성인 강좌 42만 원, 어린이 강좌 21만 원이다. 모든 강좌는 입문반부터 시작하며, 3개월 과정에서 6개월 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통예술을 처음 접하는 수강생도 국악·한국무용 등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게 됐다. 분야별 실력 있는 전문 강사들이 강의계획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기 강습을 진행한다. 수업은 경기국악원(용인) 제1강습실, 제2강습실에서 진행되며, 강좌별 강의계획서는 국악원 홈페이지(www.gg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24 시즌 조기예매 오픈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24 시즌인 마스터즈 시리즈 라인업 공개에 이어 티켓 조기예매를 오픈했다. 티켓 예매는 1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오픈됐으며, 해당일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방문 수가 급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조기예매 기간은 1월 31일까지 1인 4매에 한해 진행했으며, 조기예매 시 40% 할인을 제공했다. 한편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김선옥 예술감독 취임기념 신년음악회 이후 총 5번의 마스터즈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2024년 시즌은 전체 공연이 하나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고전부터 현대음악까지 익숙한 레퍼토리와 도전적인 작품을 적절히 배치하고 협주곡과 교향곡의 결을 달리해 신선함을 더했다. 첫 정기연주회를 베토벤으로 시작해 베토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브람스와 리스트, 리스트와 연결된 바그너, 바그너와 연결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슈트라우스와 연관된 말러, 이 모든 작곡가들과 연결된 버르토크까지 서양 음악사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작곡가들을 한해 동안 조명할 예정이다.



02 Febr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이영란의 감성체험 가루나무모래흙 10:00~18: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문의 ☎ 0507-1467-0198		토마스스트로넨 "Time Is A Blind Guide" 첫 내한공연 19: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10-2503-6160
4	5	6	7	8	9	10
			경기도극단 <창작희곡의발견-낭독극> 18: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324~5			
11	12	13	14	15	16	17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 용감한 구조대 레스큐 타요> -수원 11:00/14:00/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66-6551	
18	19	20	21	22	23	24
			조이라이프 예술단 제18회 정기연주회 19: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10-8872-9433			특선 가족뮤지컬 "겨울이야기" - 수원 11:00/14:00/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10-2631-4382
25	26	27	28	29	30	31
						

기획공연 ☎ 031-230-3440 경기도극단 ☎ 031-230-3302~4 예술단 기획공연 대관공연 대관전시(체험)
 경기도무용단 ☎ 031-230-3311~4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 031-289-6471~4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031-230-3321~5

03 M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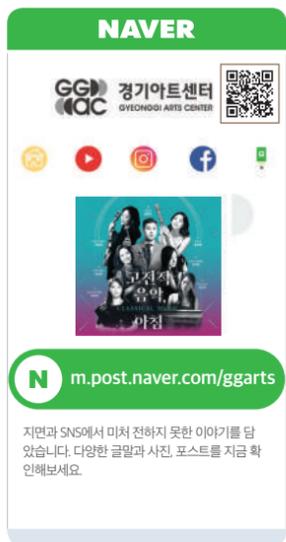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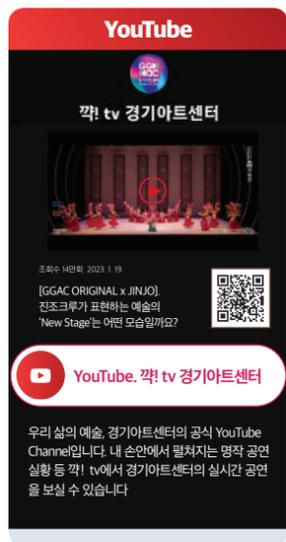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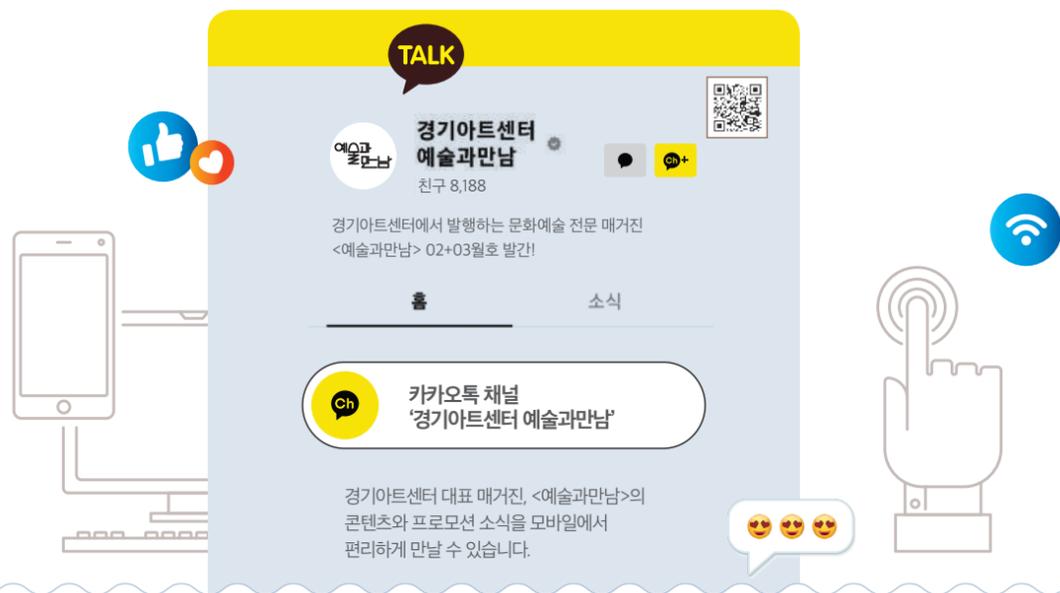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이영란의 감성체험 가루나무모래흙 10:00~18: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문의 ☎ 0507-1467-0198	
3	4	5	6	7	8	9
			경기도극단 <창작희곡의발견-입체낭독극> 18: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302-3			
10	11	12	13	14	15	16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I <베토벤 교향곡 3번>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 031-230-3324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I <베토벤 교향곡 3번> 17:00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문의 ☎ 1577-776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상기 공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단 기획공연 대관공연 대관전시(체험)
 티켓문의 ☎ 031-230-3441~2 (평일 10:00~19:00, 주말 10:00~17:00)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예술과 만남

경기아트센터 매거진 <예술과만남>을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만나보세요
 e북, 뉴스레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편리하게 매거진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의 공연 소식, 문화예술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채널별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경기아트센터를
 모바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술과만남'은 경기아트센터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매거진으로,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공연 소식을 비롯하여
 국내외 문화예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연과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ID : @magazineggac

행복이 바껴 영희의 나라

연출. 김광보

행복이 바껴 영희의 나라

2023 창작희곡공모 당선작 **낭독극 & 입체낭독극**

부인의 시대 | 작. 이미경

우체국에 김영희씨 | 작. 박강록

낭독극
2024년 2월 7일

입체낭독극
2024년 3월 6일



무료예약하기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